춘천성시화운동본부
춘천시 운교동 174-3
E-mail: hc1260@hanmail.net
TEL: 033)256-1260~1
FAX: 033)257-1260

춘천성시신문

성시비전
교회갱신·부흥·복음화운동
교회연합일치운동
새로운 도시 모범시민운동
세계복음화 기도운동

www.holycity.or.kr
발 행 인 : 장효근
1998년 9월 15일 창간
The Chuncheon Holycity Times
제 124호 2009년 3월



선조들의 희생과 외침이 하늘 가득한 3월

"야곱의 하나님으로 자기 도움을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그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시편 146:5)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는 거룩한
3월 되십시오,

INDEX

2 현재의 경제적 난관, 믿음과 희망으로 극복하리!
3 거룩을 꿈꾸는 춘천에 희망의 나무를 심습니다!
4 · 5 거세계적 경제위기 희망의 길은 없는가?
6 주님의 순결한 신부와 같은 교회(강북성결)



9 똑똑한 등신이 내 몸을 살린다(I)



13 퀴비디스

현재의 경제적 난관~ 믿음과 희망으로 극복하라~



현재에 대한 바른 문제인식에서부터 출발

요즘은 주위에서 들려오느니 다 '힘들다', '죽겠다'는 소리뿐이다. 이것은 말뿐이 아니라 사실이다.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경제적 어려움과 그에 따른 이러 저러한 현상들은 분명한 사실이다. 현실인식은 분명할수록 좋다. 왜냐하면 현실을 정확하게 직시할 수 있어야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이다.

사실 아침에 일어나 뉴스를 보기가 두려울 정도로 이 시대가 암울하다. 누구도 쉽사리 희망을 말하지 못하고 있다. 경제적인 불안이 깊어지면서 사람들은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다. 이럴 때 교회가 뭔가 딱 부러지는 말을 할 수 있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하지만 교회 역시 답답한 것은 마찬가지다. 많은 사람들이 실업대란을 걱정한다. 일전의 뉴스에는 실업자가 100만 명에 육박했다고 전한다. 나누는 것은 엄두도 내지 못한다. 내 코가 석자인데 누굴 돕느냐는 식이다. 그래서 점점 이기적인 욕심으로 정의나 선은 모두 뒷전이다.



우리나라 경제는 미국을 비롯하여 세계에 의존

옛말에 미국이 기침하면 한국은 몸살을 앓는다는 말이 있다. 잘 알다시피 미국의 경제가 심각하다. 경제지표보다 훨씬 바닥을 치고 있다. 요즘 매스컴에서 전문가들이 너무 많이 이야기를 해서 경제에 대한 식견이 없는 사람도 알아들은 만하게 되었다. 서브프라임 모기지로 발단된 미국 경제의 하락, 리먼 브라더스의 부도 등이 세계경제로 파급되면서 일파만파로 세계경제를 흔들고 있다. 달러화가 약세화 되면서 달러를 그래도 많이 보유하고 있던 아시아 국가 중 한국 중국 일본 대만 등이 앞아서 엄청난 손해를 치러야 했다. 위기가 올 때는 몸을 낮추는 것이 정석이다. 이전 정부는 성장보다는 분배를 중심으로 안정을 추구해왔다면, 현 정부는 위험을 무릅쓰고라도 성장 중심의 드라이브를 걸려고 몸부림치고 있는 듯 보인다. 만약 국가경제를 담보로 국민의 인기를 얻으려고 한다면 더 큰 위기를 자초하는 일이 될 것이다.

교회는 위기를 기회로 보고, 현실이해를 기반으로 희망을 선포해야

요즘 미국은 경제위기를 겪으면서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들고 있다고 한다. 사람들은 절박할수록 하나님의 은총을 고대하기 때문일 것이다. 어찌면 어떤 경우는 경제적인 파국에서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교회에 나아가 하나님의 손을 잡는지도 모른다.

어려운 상황에서 교회에서 전해지는 주요 메시지는 희망에 대한 메시지가 많다. 믿음과 용기를 갖고 어려움을 이겨야 하며 이 어려움의 터널을 지나면 희망의 시간이 올 것이라는 내용이다. 어려움을 거침돌이 아니라 오히려 디딤돌로 삼아야 한다며 어려움을 이겨낸 신앙인들의 경험을 듣다. 그러나 현실에 대한 정확한 인식과 대안이 없이 막연히 희망을 강조하는 것은 문제이다. 아무리 희망을 이야기한다 하여도 사실에 대한 정확한 인식이 없다면 그 희망은 희망이 되지 못한다. 희망이 사람의 감성에 기대와 설렘을 준다고 해도 사실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열매가 없을 것이다.

확고한 믿음으로 부정적 감정을 극복하라

어려운 일, 힘든 일, 고통스런 상황에 처했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대처 하는가? 대부분 사람들이 긴급한 상황이 닥치면 평상심이 깨지면서, 당황하고, 걱정하기 시작한다. 처음은 도저히 감당키 어려워 어찌해야 할지를 모르던 것이 시간이 흐르면서 차츰 차츰 평상심이 돌아온다. 그렇다고 문제가 해결된 것은 아니나, 피 말리는 근심만은 누그러졌다는 말이다. 문제꺼리는 가슴 이래로 잠겨있는 채 일상을 살아간다. 꺼지지 않는 불씨처럼 은근히 압박하게 된다. 마치 체한 뱃속처럼 늘 거북스럽게 말이다.

이 증상을 마음이 체한 증상이라고 볼 수 있다. 마음이 체하는 것에서 만병이 시작된다. 마음이 치료되어야 기운이 나고, 기운이 나야 신체가 건강을 회복할 것이다. 그러면 어떻게 이 마음을 치료해야 할까? 바로 긍정심을 회복하는 법이다.

이렇게 정신적인 영역인 감성과 물리적인 영역인 사실 사이에는 경계가 분명하지는 않다. 예를 들어, "요즘 감기는 한번 걸리면 잘 안나요. 한 달씩이나 가요." "요즘은 독감예방주사 맞아도 소용없데요." 등 이렇게 주변에서 부정적인 말을 쏟아내면 이 사람은 이내 부정적인 분위기에 빠지게 될 것이다. 이런 경우, 부정적 감성 때문에 물리적인 면역 메카니즘이 약해지는 것은 자명하다. 쉬 피곤해진다. 무엇인가? 감성 때문에 사실이 변하는 것이다.

반대의 경우도 가능하다. 빨리 나을 것이라고 확신한다면, 따끈한 차와 비타민 씨도 복용하고 적절하게 휴식을 취하면서 '이 정도쯤이야' 하고 독감을 훽 날려버릴 것이다. 마찬가지로 신체의 물리적 상황이 바뀔 것이다. 정신적 상황과 자세가 어떠하냐에 따라 신체의 회복에 차이가 있다는 것이다.

소망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희망을 선포하라



지금처럼 어려운 때 수많은 부정적인 암시가 쏟아져 나온다. 지난해에는 미네르바란 이름으로 인터넷을 떠들씩하게 하며 한국의 위기설이 확산되어서 정부가 이를 진화하느라 진땀을 흘렸다. 또 근간에는 3월 위기설이 심심치 않게 흘러나오고 있다. 대부분은 정확한 사실에 근거하지 않고 추측에서 나오는 허구이다. 그럼에도 많은 국민이 이러한 부정적인 말에 사로잡히게 된다. 어려운 위기가 닥치올수록 부정적인 암시에 사로잡히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현실에 대한 바른 인식과 직시가 필요하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어려운 현실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희망의 감성을 가져야 한다. 사람이 다른 존재와 다른 것은 영혼과 정신이 있다는 것이고, 이것은 하나님과 통한다는 것이다. 내 영혼과 정신의 주파수를 하나님과 항상 맞춰야 한다. 희망은 근본적으로 창조주 하나님에게서 온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희망은 우리의 어리운 현실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놀라운 힘이 있다. **여러분의 감성에 하나님의 희망이 흐르게 하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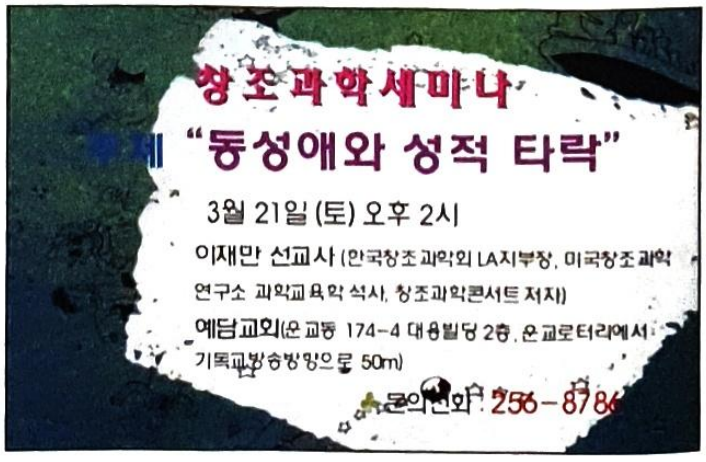
고난 중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고난 중에 하나님은 우리를 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 고난의 현장 속에 주님이 함께 하신다. 그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라. 그분의 역사를 기다리며 모든 일에 감사하자. 사단이 우리에게서 하나님 말씀을 빼앗아가는 방법 중의 하나는 바로 근심이다. 기도로 모든 염려를 맡겼으면 염려하지 말자. 계속적으로 근심하는 것은 교만과 같다. 왜냐하면 문제해결에 하나님이 필요 없음을 뜻하는 대도이기 때문이다. 겸손은 주께 의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표현된다. 모든 것에서 염려하지 않고 믿고 기도하는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께서 풍요롭고 행복하게 하실 것이다.

[편집위원 최 영 조]

피아노 · 관현 · 타악기 · 국악기
호산나악기
피아노 조율 · 운반/수리 · 매매 · 방음
대표 이 무 식 장로(석사교회)
이 범 덕 집사(석사교회)
석사동 춘천교대 후문 맞은편
☎ 033) 261-2305
010-4125-7343, 010-7624-0089







거룩을 꿈꾸는 춘천에 희망(예수님)의 나무를 심습니다!

십자가 나무 (성시목 聖市木: 산딸나무) 심기에 동참해주세요.

춘천성시화운동본부에서는 성시화 모델도시로서 거룩한 도시 춘천을 상징하는 가칭 「성시목(聖市木)」으로 〈산딸나무〉를 택하여 뜻있는 교회와 선교단체, 성도, 그리고 시민들의 정성을 모아 춘천시 도시경관 조성사업과 연계하여 가로변 녹지대 또는 가로공원 요소요소에 심을 계획이다.



성시목 선정 배경

'춘천성시화를 위한 기관장 기도모임' 이 뜨겁게 진행될 무렵인 95년 말 국정원 강원지부장으로 부임한 이범찬 장로는 성시화기도모임에 참석. 기념선물로 산딸나무로 만든 십자가 모형을 나누어주고,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 원목의 유래를 설명하면서 이 나무를 성시상징물로 할 것과 춘천시에서 많이 심도록 제안하였다. 그 후 춘천시(당시 배계섭 시장, 중앙성결교회 장로)에서 이 제안을 수용하여 퇴계동 중앙감리교회 주변(당시, 군사 시설지)과 온의-석사동간 중앙고속도로변 가로녹지공원, 후평3동-GS마트 간 도로변 산기슭 등에 3,000여 그루를 계획적으로 심었고, 최근 건축한 뜨란채 아파트 등 공동주택지 조경용으로 식재 권장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 지역에는 매년 여름 꽃이 귀한 6월, 여름 꽃으로 나날이 도시경관을 더해가고 있어 산책하는 시민들의 발길을 멈추게 한다. 앞으로 춘천을 찾아오는 국 · 내외 관광객들에게 감탄을 더하게 할 것이며, 성시의 이미지를 크게 부각시키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

홍보와 참여 당부

성시화운동의 발상지이며, 지금은 이 도시에서 시작한 성시화운동이 국내 35개 지역도시와 국외 15개 도시로 확장하여 그야말로 세계선교의 대 역사를 이루어가고 있다. 이 현상은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이다. 하나님이 들어 쓰시는 도시 "춘천"의 "성시화"는 우리의 꿈이며, 우리의 사명일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다.

이제 우리 춘천시를 성시화의 모델도시로서 위상을 더 높이고 선교 명품도시로 만들기 위하여 도시환경을 가꾸는 일에도 성시의 상징성을 갖추도록 참여함이 마땅하다 하겠다. 성시목(산딸나무)의 상징성과 식재계획에 대한 홍보와 함께 모든 교회, 선교단체, 성도들과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

산딸나무

* 학명 : Cornus kousa Buerg * 분류 : 층층나무과

〈특 성〉

* 높이 15m, 직경 70㎝ 정도까지 자라는 낙엽성, 큰키나무.
* 수피는 회갈색이나 성장할수록 나무껍질이 벗겨지는 현상이 나타난다.
* 잎은 마주보기 달걀형으로 끝이 날카롭고 밑은 넓은 쐐기 모양이며, 가장자리는 물결모양. 측맥이 활처럼 굽고 잎 뒷면에 갈색털이 촘촘히 난다.
* 꽃은 6월에 두상꽃 차례로 짧은 가지 끝에 30여 송이가 모여피고, 꽃잎처럼 보이는 4장의 하얀 총포가 십자가형으로 받치고 있는 형태이다.
* 열매는 딸기모양으로 10월에 연 붉은색으로 익고 단맛까지 있다.

〈분 포〉

*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중국, 일본에 분포하고 수직적으로는 300~1,200m까지의 생육범위에 자라고 있다. 중부 이남의 산야에서 자생하고 제주도 한라산에서 표고 1,800m까지 자라나 주로 표고 300~500m에 많이 분포한다.

〈유 래〉

* 산딸나무는 열매가 딸기와 비슷한 모양으로 생겨서 '산의 딸기나무' 라는 의미로 산딸나무라고 부른다.
* 산딸나무는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가 이 나무로 만들어졌다는 설이 있어 기독교에서는 성스러운 나무로 여기며 기독교인들의 사랑을 받는다.
* 옛날 중동지방에는 재목으로 쓸 만한 큰 나무들이 없었으며, 유일하게 키도 크고 굵으며 재질이 단단한 재목감으로 산딸나무 밖엔 없었다고 한다.
* 예수님께선 자신의 고통에 마음 아파하는 산딸나무에게 조용히 말했다고 한다. "산딸나무야! 다시는 십자가를 만들 수 있게 큰 나무로 자라지 말고, 가늘고 구부정하고 잔가지들이 뒤엉킨 관목으로 자라거라. 꽃은 위아래로 큰 꽃잎 두 개와 양옆으로 작은 꽃잎 두 개가 붉은 십자가 형상으로 필 것이고 꽃잎 끝 부분에는 피 묻은 색깔로 못 자국을 표시할 것이며, 꽃 가운데는 가시나무 왕관을 표시해서 보는 이로 하여금 나를 기억하게 하리라."라고 말씀하셨다고 한다.

〈용 도〉

* 생장속도는 느리나 환경오염에 강하여 관상수로 적당하며, 도심의 공원 가로수용으로 좋다. 목재는 깨끗하고 맑은 흰색으로 재질이 곧고 단단하여 가구재와 오보에, 플롯과 같은 목관 악기를 만드는데 최고의 나무이다.

성시목 심을 계획

1) 심는 시기 : 매년 3~4월 중 (2009년에는 4월중)
2) 심는 장소 : 가로변 녹지 · 공원 또는 주택지 정원(가로변 녹지 · 공원은 춘천시와 협의 선정)
3) 참여방법 : 한 사람이 한 그루 이상 헌수(묘목대 헌금, 식재작업참여)
   ① 나무의 크기 : 키(H) 2m × 굵기(근원경:R) 4㎝
   ② 한 그루당 가격 : 20,000원
   ※ 헌금구좌 등 참여문의 : 033)256-1260
4) 기록관리 : 참여하신 분을 성시신문에 자랑하고 심은 나무에 헌수(식재)하신 분의 이름포찰 부착 예정
5) 나무관리 : 비배, 전지 · 전정 · 보호 관리는 춘천시에서 하도록 협의 예정

[춘천성시본부 사무부총장 김 영 명 장로]






chcm 춘천성시화운동본부 Chuncheon Holy city Movement

춘천 성시화를 위한 3천 성시후원자를 찾습니다

춘천성시화를 위한 기도 제목

- 춘천이 성령충만하고 범죄 없는 거룩한 복된 도시로
- 춘천이 예술과 문화, 교육과 환경의 세계적 명품 도시로
- 교회와 열방을 위한 신실한 지도자들을 양성하는 도시로
- 춘천이 살기 좋고 아름다운 행복한 모델 도시로

후원자 참여 안내

- 성시 3천 기도후원회 가입신청서를 작성해 주세요.
- 1인 월회비 최소 3,000원을 약정해 주세요.(자동이체)
- 119기도운동에 참여해 주세요.(하루 1번 9분 기도하기)

문 의 : 033) 256-1260~1 춘천성시화운동본부

[홈페이지: www.holycity.or.kr / E-mail: hc1260@hanmail.net]

우편계좌 농협 172242-51-085114, 와이신협 04073-12-009998

-예금주:춘천성시화운동본부-

♠성시주일을 지킵시다! 10월은 성시화운동이 태동된 달입니다. 10월 첫째주일을 성시주일로 지켜주시고, 성시화운동을 위해 헌금해주세요.♠

춘천성시화운동본부



세계적 경제위기 희망의 길은 없는가?

|참여자: 양봉남(춘천시청 미래사업단장, 춘천직장선교연합회장), 이병철(성시본부 살기좋은도시만들기위원장, 주향교회 담임), 최준호(허천국회의원 보좌관)

최근 국가적 경제위기로 고통 받는 국민들이 늘어나고 실업자 수도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특히 청년실업의 골은 깊어지고 있다. 국제통화기금(IMF)사태 당시 극심했던 20대 청년실업상황을 빗대어 유행했던 '이태백(이십대 태반이 백수)'은 10년 만에 '이퇴백(20대 스스로 퇴직을 선택)'으로 퇴화했다. 이에 한국교회와 목회자들이 경제희망의 길을 찾기 위해 힘을 모으고 있다. 지난 2월 23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교회가 고통분담에 앞장섭시다' 기자회견에서 128명의 목회자들이 사례비의 5%를 나눔으로써 어려운 이웃을 돕기로 했다. 특히 "이번 목회자들의 고통분담 운동이 교회 안으로 확산돼 일반 평신도도 함께 동참하기를 기대한다."며 경제위기 상황에서 특별한 어려움을 겪지 않는 고정 봉급자 성도들이 소득의 1-3%를 내어 놓아 사랑실천에 참여해 줄 것을 제안했다. 정부는 인턴 제도를 확대 실시하거나 고학력 실업자와 저학력 취약계층 등의 맞춤형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등 각종 실업대책에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큰 효과를 나타내고 있는 못하는 형편이다. 한국교회는 경제난국과 위기감이 팽배한 사회분위기를 떨쳐버리고 한국사회에 새로운 희망을 줄 수 있어야 한다. 개척의 선두에서 경제희망의 길을 만들어 나가고 있는 분들이 말하는 믿음과 도전의 삶에 주목해보자.

현재의 경제위기를 바라보는 그리스도인의 올바른 시각은 무엇인가?

✲ 양 봉 남 (춘천시청 미래사업단장)

현재의 경제적 위기는 지난 IMF때와는 다르다. IMF는 외환관리를 잘못해서 일어난 우리나라만의 문제였다면 지금의 경제위기는 전 세계적인 위기이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현재의 경제위기와 관련해서 냉철하게 판단해야 할 부분이 있다. 반만년 한민족 역사에 있어서 우리 민족이 오늘날과 같이 잘살았던 적이 없었다. 아무리 어렵다고 하더라도 밥을 굶는 사람은 거의 없다. 절대적 빈곤은 대다수 국민에게 있어 이미 사라진지 오래다. 그동안 짧은 기간에 급속한 경제성장을 이룬 것은 감사할 일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물질적 풍요를 지나치게 누린 점도 있다. 현재의 경제적 위기가 주는 더 큰 문제는 상대적 빈곤으로부터 오는 심리적 절망감이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으로 '절망'이라는 심리적 두려움을 극복하고 위기를 도전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

✲ 최 준 호 (허천국회의원 보좌관)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종류의 위기, 특히 경제적 위기를 부정적으로만 생각하지 않았으면 한다. 성경이나 교회의 역사를 보면 사회적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영적부흥이 일어났다. 현재의 경제적 위기도 영적부흥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있으리라고 생각한다. 저는 개인적으로 마태복음 6:33절 말씀을 좋아한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예수님 당시에도 이스라엘 사회는 정치적, 경제적으로 매우 암울한 시대였다. 로마의 경제적 수탈로 말미암아 일반 백성들이 삶은 매우 피폐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경제적 부흥을 우선적으로 말씀하지 않으셨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을 추구하라고 말씀하셨다.** 그리하면 경제적인 문제도 해결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다. 현재의 경제적 위기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위축되지 않았으면 한다.

많은 사람들이 감원과 구조조정의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 희망의 길은 없는가?

✲ 양 봉 남

기업들이 살아남기 위해 감원과 구조조정은 필연적인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먼저 그리스도인들은 **감원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자기 관리를 잘해야 한다.** 기업이 살아남을 수 있도록 개인적으로 부지런해야 하고, 자기분야에 전문가가 되어야 한다. 열정과 능력을 가진 자가 되어 회사의 발전에 기여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요인으로 구조조정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이런 경우에는 **낙심하지 말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긍정적인 태도로 받아들이면 더 좋은 일자리로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할 수 있다. 제가 아는 어떤 분도 어느 날 감원이 되셨다. 그런데 낙심하지 않고 긍정적인 믿음으로 기도하며 최선을 다해 일자리를 찾아 맡겨지는 일을 성실히 감당하셨다. 결국 행정의 은사 있는 것을 알게 된 주변 사람들의 추천으로 중소기업 총무팀에서 팀장으로 일하게 되셨다.

✲ 이 병 철 (성시본부 살기좋은도시만들기위원장))

다난흥방(多難興邦)이란 사자성어가 있다. 많은 어려움을 겪으면 나라가 흥한다는 뜻이다. 위기는 어느 시대에나 있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위기를 새로운 도약의 발판이나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는 기회로 삼는 유전자(DNA)를 갖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위기 앞에 움츠리거나 절망할 것이 아니다. 다만 **위기의 때는 우리에게 있던 거품이 빠지고, 인생과 삶의 목표를 재설정하도록 한다.** 사회 전체가 위기에 직면한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다 어렵고 절망하는 것은 아니다. 자기갱신을 거친 개인이나 기업은 도리어 위대한 기회가 되고, 새로운 일을 창출하는 호기가 된다.

위기극복을 위해서 그리스도인들이 명심해야 할 핵심가치는 무엇인가?

✲ 최 준 호

사무실에 있으면 많은 분들이 취업을 상의하기 위해 온다. 그런데 원하는 일자리를 알선해 주기가 쉽지 않다. 그렇다고 일자리가 아주 없는 것은 아니다. 고학력자들이 원하는 일자리가 부족할 뿐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똑같은 보수를 받아도 3D업종은 회피하고 있는 실정이다. 요즘 김수환 추기경이 많은 사람들의 존경의 대상이 되고 있는데, 이유가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가난한 삶을 본받아 모범을 보여주었기 때문이다. 경제위기시대에 그리스도인들에게 회복해야 할 **핵심가치 중 하나는 직업소명의식이라고 생각한다.** 낮은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삶의 태도가 중요하다. 하나님께서 어떤 자리로 부르셨든지 최선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

춘천성시화운동본부와 함께 하는
좋은 시민을 위한 시민학교(예정)
주제: "우리 동네 춘천~ 행복한 마을 만들기"
- 제1주: 향후 춘천지역의 발전방향, 강사: 양 봉 남(춘천시청미래사업단장)
- 제2주: 시민의 눈으로 바라보는 춘천, 강사: 최 준 호(국회의원 보좌관)
- 제3주: 아름답고 살기좋은 동네만들기, 강사: 안 동 규(지방분권아카데미)
- 제4주: 시민의 참여로 만들어가는 도시, 강사: 강 명 찬(지속가능협의회)
- 회 비: 4만원 ♣ 협 력: 춘천발전포럼, 창조도시시민포럼
- 문 의: 춘천성시화운동본부 033)256-1260 / 010-3118-9355

MPS 16기
선교세계관학교
Mission Perspectives School
2009 선교훈련생모집
- 훈련기간: 2009년 3월 21일(토)~6월 6일(토) [12주간]
  매주 토요일(오후3시~8시)
- 강의내용: 선교사 또는 선교 동원가로서 실제적인 안목을 갖춘 21C 지도자를 키워내는 과정
- 장 소: 베드로선교문화센타 5층 추수홀 (법원옆)
- 지원서류: 입학원서(홈페이지 참조) www.mpscc.net
- 등 록 비: 10만원(교재비 미포함)
- 문 의: MPS 사무실 033) 253-3399, 010-4116-5373
- 주 관: 사단법인 베드로선교문화센타

헝그리 정신으로 인생을 도전하라!



| 진행자: 정재호 / 사 진: 김미경

✲ 양 봉 남

최준호 보좌관의 말에 전적으로 공감한다. 경제적 위기로 어렵고 힘든 것은 사실이지만 일자리가 없는 것은 아니다. 고학력자들을 위한 일자리가 부족하다. 마음을 낮추고 일자리를 찾으면 할 수 있는 일은 많이 있다. 위기는 곧 기회라는 말이 있다. 그리스도인들은 비전과 개척정신을 가지고 도전해야 한다. 춘천시에서도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대기업만 선호하여 경력을 쌓을 수 있는 좋은 기회를 놓친다. 숲 가꾸기, 하천지킴이 모집을 하면 젊은 층은 지원을 안 한다. 스스로 개척정신을 가지고 봉사하겠다는 마음을 먹고 도전하면 위기가 성공의 기회가 될 수 있다. 기독청년들에게 말하고 싶다. **헝그리정신을 가지고 인생을 도전하라!**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구체적 대안이 있다면 제시해 달라.

✲ 이 병 철

어려워도 결국은 서민이 어려운 것이다. 춘천의 높은 물가는 서민들의 안정적인 삶을 위협한다. 또한 중앙정부는 국가의 균형발전을 꾸준히 실현하는 정책을 마련해야 하며, 지방은 지방만이 갖고 있는 강점을 적극 살려나가야 한다. 이미 지방시대가 열렸다. 야마오 산세이가 "여기에 사는 즐거움"이란 책에서 "우리는 지구 크기로 생각하며(Think Globally), 지역에서 행동한다(Act Locally)"는 말을 했는데, 너무나 공감이 된다. 춘천은 젊은 사람들이 새로운 도전을 하기에는 기반이 빈약하다. 유능한 인재들이 수도권으로 이탈하지 않고 지역에서 꿈을 갖고 도전할 수 있는 다양한 인프라를 구축해야 한다. 뿐만아니라 **지방에서 열 방으로!란 모토를 걸고 강원도나 춘천시에서 글로벌 네트워크를 통해 청년들이 세계를 대상으로 꿈꾸고 도전할 수 있도록 다양한 기회를 제공하는 정책을** 마련하는데 좀더 적극적이어야 한다고 본다. 춘천은 수도권과의 용이한 접근성, 친환경적인 도시 이미지, 통일 한국에 대한 미래 비전을 통해 세계적으로 뻗어갈 수 있는 충분한 강점이 있는 도시이다. 이런 꿈을 차세대에게 불어 넣어야 한다.

✲ 양 봉 남

8월엔 춘천-서울간 고속도로가 개통된다. 경춘선 전철복선사업도 순조롭게 진행 중에 있다. 춘천시에서는 이를 기업유치로 연결시키기 위해 5개 산업단지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전략산업단지(동산면 봉명리), 첨단문화산업단지(서면 현암리), 더존디지털벤처단지(남산면 수동리), 전력IT산업단지(남산면 창촌리), NHN연구단지(동면 만천리) 등이다. 2015년까지 250개 기업을 유치, 3만개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목표를 세워놓고 있다. 이 목표가 달성되면 고학력을 흡수할 수 있는 일자리가 될 것이다. 또한 **인구 40만 목표로 도시공간을 재창조하는 일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춘천을 바꾸는 3대 프로젝트**라고 할 수 있는 **도시 재정비 촉진사업**(효자,조운교동,소양,약사지구 등 옛도심 4개지구), **시립화장장 이전, 약사천 복원사업**(운교동 외환은행 뒤편부터 춘천우체국, 풍물시장, 춘천경찰서 뒤편 공지천 유입까지)을 올해부터 본격 시작한다. 특히 춘천판 청계천 조성으로 불리는 약사천 복원사업은 공지천 생태복원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것으로 춘천의 대표 하천인 공지천을 생태적으로 복원되면 물과 생명의 도시 춘천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하천이 될 것이다.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력을 부탁드리고 싶다.

✲ 최 준 호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가진 분들이 적극적으로 나눔을 실천해야 한다. 고통 받는 서민들을 위해 시간, 물질, 노력을 나눌 때 우리사회가 상 · 하 · 좌 · 우로 소통하게 되어 건강한 사회로 발전하게 된다. 또한 사회적 기업들이 많이 나타나야 한다. 시민들로부터 창출된 수익의 일부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환원하게 되면 더욱 사랑과 존경을 받는 기업으로 신뢰를 얻게 될 것이다. 또 한 가지, **소액금융대출(마이크로 크레딧)운동이 지역에서 뜻있는 분들을 중심으로 활성화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기독교정신으로 "빈곤층의 자활을 돕는다는 무담보 무보증으로 자금을 지원하는 마이크로 크레딧 운동"**이 활성화되면 신용의 능력이 상실되었으나 자립할 능력이 있는 사람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다. 경제위기시대에 서민들에게 사랑과 나눔으로 희망을 주는 모델이 절실히 요구된다.

교회는 무엇으로 경제희망을 제시할 수 있겠는가?

✲ 이 병 철

지금이야말로 한국교회가 세상에 빛과 소금의 사명을 다해야 할 시기이다. 위기를 위대한 부흥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 역대하 32장에 보면 히스기야 왕은 당대의 가장 강국인 앗수르의 침공으로 위기를 맞았다. 지금 우리가 처한 현실보다 더 어려웠다. 하지만 히스기야왕은 **1)더불어 의논하여 위기를 극복할 지혜를 모우고, 2)자신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3)필요 적절한 곳에 사람을 세우고, 4)서로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을 믿고 격려하며 5)선지자와 더불어 기도에 힘썼다.** 이때 하나님이 천사를 동원하여 적을 치심으로 위대한 승리를 거두었다.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사람이 해야 할 일이 있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만 되는 일이 있다. 우리는 성실하게 일할 뿐만 아니라 영적 지도자들과 함께 기도하면 하나님은 위기를 위대한 기회로 만들어 주실 것이다.

✲ 정 재 호 목사

역사적으로 그리스도인과 교회는 민족이 위기에 처했을 때 고난극복의 구심점과 원동력이 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된다. 경제위기 앞에서 물질을 과신하고 절제하지 못했던 불신앙을 회개하며 내면을 깊이 성찰하고 참된 경건을 회복해야 하겠다. 귀한 시간을 내주셔서 격려와 희망을 말씀을 주심을 깊이 감사드린다.



BE DTC

BEDTC(예수 전도단 제자훈련과정)

■ 강의내용 :
- 아나님의 음성 : 천태석 목사
- 목상 : 김수철(전 YWAM 청주지부장)
- 중보기도/영적전쟁 : 박민호 간사(YWAM 대구지부장)
- 예배 : 박희광 목사/ - 정체성: 김준성 목사
- 성령 : 원 안드레 목사/ - 제자도/선교
- 내적치유 : 김준환 간사(YWAM 춘천지부장)
- 건강한 관계 우성환 목사

■ 훈련대상 : 만 20세 이상의 그리스도인
■ 훈련기간 : 3월 11일 ~ 5월 1일(총 2달간의 훈련)
■ 훈련시간 : 매주수, 목, 금 / 오전 9:30 ~ 오후5:30
■ 훈련장소 : 베드로선교센터 5층 추수룸
■ 전도여행 : 1주일간의 무박전도여행(강원권 중심의 전도여행)
■ 소요재정 : 35만원(입학금 20만원/5만원 후납 - 전도여행비 별도)
■ 접수 및 문의 : 춘천지부사무실 033)252-1128

*원서구입(2000원) 후 접수 / 접수처는 사무실 또는 학교모임 때 받습니다.



주님의 순결한 신부와 같은 교회

강북교회는 지난 1997년 10월에 창립되어 12년의 비교적 짧은 역사를 가진 교회이다. 최예석 목사와 조영실 사모를 중심으로 개척된 강북교회가 주님의 순결한 신부가 되기 위해 지금까지 주님의 음성만을 좇아 순종하며 살아온 지난 이야기들을 함께 나눠보자.

의미 있는 교회탐방순서로 강북성결교회(최예석 목사)편입니다



최예석 목사

최 목사는 강원도 화천이 고향이다. 최 목사의 부모님은 화천에서 오랫동안 터를 마련하고 사셨지만 1960년대 중반 화천 지역을 덮친 대홍수로 강은 범람하고 많았던 농토는 유실되고 만다.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자연스럽게 최 목사의 가정을 춘천으로 그 장막을 옮기도록 역사하신다. 그 후 춘천에 정착한 최 목사는 춘천중앙교회를 통해 예수님을 알게 되고, 초등학교 시절부터 주의 종이 되고자 하는 열망을 품게 되었다고 한다. 졸업 후 5년간의 직장생활은 목회의 폭을 넓혀가는 전초지로서의 훈련장이 되었으며, 이후 목회의 부르심에 순종하고자 신학대학교에서 신학을 공부하게 된다. 조영실 사모를 만나게 된 것은 춘천중앙교회 청년회장 시절. 하나님을 향한 뜻과 구령의 열정이 있었던 두 사람간의 열렬한 사랑이야기는 주변사람들에게 큰 에피소드로 남아 있다.

최 목사는 춘천 사암중앙교회 담임목회자를 거쳐 서산에서의 부교역자 사역을 훌륭히 마친다. 이후 주님은 다시 고향 땅인 춘천으로 부르시고 교회 개척을 명하신다. 며칠의 기도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한 후 교회를 창립한 것은 1997년 가을, 우두동이었다. 소양2교를 건너자마자 위치한 교회는 수려한 소양강에 인접하여 기도와 영성훈련, 말씀의 터전이 되기에 충분한 곳이었다.





주님의 마음을 품고

최예석 목사를 잘 아는 지인들은 그에 대해 '최 목사는 기도의 사람, 성령의 사람' 이라고 주저 없이 말한다. 아닌 게 아니라 최 목사는 목회 초기부터 하루 3-4시간 이상을 기도와 말씀, 매일 저녁 예배로 드렸다. 그 가운데 성령님의 인도하시는 음성과 이끄심이 있으면 이유를 달지 않고 성령께 순종했다. 순종의 사람 이삭이 떠오르는 대목이다. 또한 최 목사는 경기도 청평에 위치한 모 기도원에서 수년간 찬양사역자로 협력하여 섬기기도 했다. 이 무렵 함께 최 목사의 사역을 도왔던 장녀 지연양이 탁월한 찬양과 율동, 출중한 외모와 매너로 방송국 모 프로그램 주연급 배우로 캐스팅된 사연도 꽤 알려진 이야기이다.

최 목사는 영성사역뿐만 아니라 사회봉사에도 많은 관심이 있다. 이 또한 성령님의 이끌리심에 순종한 결과이다. 2007년 가을 주님은 주변의 이웃들을 먹을 것으로 섬기라는 음성을 주셨다. 이에 따라 최 목사와 강북교회는 주변의 노인들과 불우한 이웃들에게 매일 같이 죽을 배달한다. 호박죽, 팥죽, 닭죽 등 메뉴를 바꿔가며 일일이 가정마다 직접 죽을 배달하여 주변의 칭송을 받았고 주님께 영광을 돌려드렸다.

다오리 사역

작년 가을부터 새롭게 시작된 사역은 다오리 사역이다. 다오리 사역은 약사명동 주민센터 옆에서 〈다오리〉라는 이름으로 오리식당(☎255-5259)을 운영하던 교우가 최 목사에게 장소를 제공하면서부터 보다 차원 높은 홈리스 사역(거리의 극빈자들을 돕는 사역)을 전개하게 되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12시에 10명 내외에게 무료로 점심을 제공하고 있다. 최 목사는 기도와 영감으로, 봉사하는 성도들은 기쁨과 헌신으로 참여한다. 성령께서 지혜를 주심으로 대부분이 알코올중독 증세가 있는 노숙자들을 위한 오리뇌수 건강음료를 만들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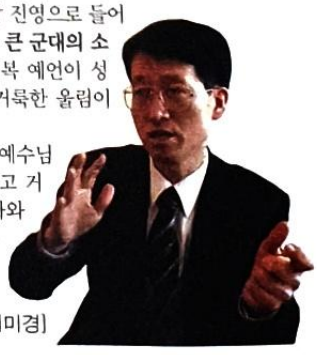
최 목사는 다오리 사역에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를 느낀다고 고백한다. 40대 중반이 된 그는 지난 생애를 돌아보니 그동안 단 한 차례도 병원에 장기 입원하거나 건강의 문제로 고통을 받아보지 않았다고 말한다. 어느 날 기도 시에 성령께서 이것을 깨우쳐 주시면서 '내가 너에게 그동안 건강의 은사를 주었다. 이제 나머지 생애는 건강을 나누며 살아라' 라고 말씀하셨다고 한다. 최 목사는 또 다른 부르심이 있기까지 강북교회 교우들과 함께 주님이 맡겨주신 이 건강을 통한 복음사역을 지속하겠다고 힘주어 말한다.

더 높은 부르심

주님이 최 목사에게 주신 말씀 중 특히 "그는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변호하고 형통**하였나니 이것이 나를 앎이 아니냐(렘22:16)",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 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눅16:20)" 이 두 말씀은 그를 가난한 자의 편에 서서 그들을 변호하고 섬기고자 하는 평생의 사역 비전이 되었다.

하나님께서는 최 목사에게 물으신다. "가난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라고 하였는데, 진정 가난한 자는 누구이더냐?" 그래서 그에겐 큰 소망이 있다. 추위 속에 버려진 채 사회적으로도 보장받지 못하고, 영혼마저 죽어가고 있는 사람들을 위한 공간을 마련하는 것이다. "의인은 포식하여도 악인의 배는 **주리니라**(잠13:25)", "그러나 악인은 **땅에서 끊어지겠고** 간사한 자는 **땅에서 뽑히리라**(잠2:22)" 이 말씀과 같이 '이 땅에서도 먹지 못하고 잠도 제대로 못 잘 뿐더러', '죽어서도 땅을 밟지도 못하고, 지옥 불에 던져져 주리며 영원히 고통당할 그들' 을 생각하면 가슴이 아프다. 그래서 한 사람에게라도 떡과 더불어 **복음을 전해주고자** 하루하루 열망이 가득하다.

지금은 아주 미약하지만 네 나병환자들이 아람 진영으로 들어갈 때 **주께서 아람 군대로 병거 소리와 말소리와 큰 군대의 소리로 듣게 하셨으므로**, 엘리사의 사마리아성 회복 예언이 성취(왕하7장)된 것처럼 이 사역 위에도 주님의 거룩한 울림이 울리기를 기대한다.



주님 오실 날이 멀지 않았다. 성경은 오실 예수님을 신랑으로, 우리를 신부로 비유한다. 순결하고 거룩한 신부로 준비되어가는 교회, 최예석 목사와 조영실 사모, 그리고 강북교회 (근화동, 010-3762-1931) 성도들이 있기에 한국교회는 어두운 세상가운데 보석처럼 빛나고 있다.

[취재 최상도, 사진 김미경]

오순절기도원
영성회복 축복성회

♣ 일 시 : 2009. 3. 9(월 저녁)~12(목 저녁)
오전 11시, 저녁 7시30분
♣ 장 소 : 오순절기도원(담임 김지훈목사, 북산면 추곡2리)
♣ 강 사 : 김 승 호 목사(일산임마누엘교회 담임)
♣ 문의 · 안내 : 033) 243-5993, 010-8263-0190

농협자산관리(주)강원지사
지사장 홍 세 표 장로
(신성감리교회 시무장로)
HP. 011-373-2877



| 영혼의 양식

삶의 초점

사도행전 24:24-27



허 창 목사
(반석침례교회)

사진을 찍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구도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구도가 좋아도 초점이 맞지 않으면 사진의 영상이 흐리게 나와 그 사진은 실패작이 되고 맙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인생도 그 초점을 어디에 어떻게 맞추느냐에 따라 인생의 성공자가 될 수도 있고 실패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유대 총독 벨릭스라는 사람은 위대한 사도 바울을 통하여 구원의 진리, 복음의 도를 듣고도 믿음의 결단을 못하여 결국 인생의 실패자요 멸망의 길로 가고 말았습니다. 그 이유는 그가 인생을 보는 가치관의 초점이 잘못 맞추어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다음 세 가지 면에서 잘못된 초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첫째, 그는 기회의 초점을 잘못 맞추었습니다.

"시방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25절) 그는 바울을 통하여 복음을 듣고 구원받을 수 있었던 절호의 기회를 "나중에 다시 보자"는 식으로 미루어 결국 구원받을 기회를 놓쳐버리고 말았습니다. 이 땅의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의 물결이 홍수처럼 흘러넘치는 이 시대에 살면서도 아직도 구원의 울타리 밖에 맴돌고 있는 이유도 이 벨릭스 총독과 같은 마음가짐 때문일 것입니다. "나중에 믿지 뭐!" "시간나면 그때 하지 뭐!"

우리가 살면서 가장 많이 후회하는 것 중 하나가 놓쳐버린 기회에 대한 아쉬움일 것입니다.

'해야 할 말이 생각나거든 지금하세요. 언젠가는 침묵해야 할 날이 올 테니까요. 사랑해야 할 일이 생각나거든 지금하세요. 언제 그 사람이 내 곁에서 떠날지 모르니까요.' 그러므로 "있을 때 잘 하십시오!" 그때가 기회입니다. 나중에는 하고 싶어도 못할 때가 올 테니까요.

둘째, 관심의 초점이 잘못되어 있었습니다.

벨릭스 총독은 바울을 더 자주 불러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러나 실상 그의 관심은 무엇이었습니까? "바울에게 돈을 받을까 바라는 고로" 그가 바울을 자주 부른 이유는 진리의 말씀을 듣기 위함이 아니라 뇌물을 얻고자하는 탐욕 때문이었습니다. 말씀보다는 돈에 초점을 맞추었던 그의 마음에 진리의 말씀이 들려올 수 없었습니다. 영원히 소유할 수도 없고, 인생을 참으로 행복하게 할 수도 없는데도 물질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서 떠나버립니다.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시고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라"(딤전 6:17)** 이제 우리는 물질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관심을 돌려야 합니다. 말씀에 초점을 맞출 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고, 은혜를 받을 수 있고, 풍성한 삶을 살 수 있고,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벨릭스의 잘못은 하나님 보다 사람에게 초점을 맞춘 것입니다.

벨릭스 총독이 바울이 죄가 없음을 알면서도 2년 넘도록 감옥에 가둔 것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함"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내 행동이 어떻게 비쳐질까? 그래서 사람들의 눈을 의식하며 삽니다. 그러나 잊지 말아야할 것은 우리의 진정한 심판자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그분 앞에 내가 어떤 평가를 받을 것인가가 우리의 유일한 관심이어야 합니다.

어떤 목사님이 이런 시를 썼습니다.

"올해가 끝이라면 남들이 아는 나에게서 내가 아는 나에게로 돌아가고 싶다. 올해가 끝이라면 내가 아는 나에게서 주님이 아시는 나에게로 돌아가고 싶다."

그렇습니다. 주님이 아시는 나로 돌아가 그 주님 앞에서 사는 것 그것이 신앙입니다.

당신의 초점은 어디에 맞추어져 있습니까? 현재입니까, 내일입니까? 말씀입니까, 물질입니까? 사람의 마음을 얻기 위함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얻기 위함입니까?

초점이 잘못되어 있으면 아무리 열심히 셔터를 눌러도 결과는 실패작입니다. 다시 맞추십시오. 선명히 그리고 정확히... 현재라는 기회를 포착하여 진리와 하나님 마음에 초점을 맞추십시오. 그러면 당신의 인생은 아름다운 축복의 미래를 찍을 수 있을 것입니다.

| 사색의 창

직장 내 신앙을 통한 경제적 난관 극복의 대안

조 남 진 집사 대성그룹 부장(갈릴리교회)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자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로 바로의 아비를 삼으시며 그 온 집의 주를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치리자를 삼으셨나이다"(창45:8)

최근 새벽 2시에 자다가 벌떡 일어났다. IMF와 금융위기로 경제난을 생애에 두 차례나 경험하게 된 고난의 아버지상으로써 인생의 터널을 지나가는 이 시대 한 가장의 나의 모습을 바라본다. 만40세의 불혹의 나이에 30대의 10년 전 나의 모습을 돌아보았다. 4,000명이 다니는 직장에서 2,000명이나 구조조정 당하는 현장에 있었다. 동료들이 직장을 잃고 나가는 현장에서 눈물만 흘릴 뿐 아무것도 해줄 수 없었다. 3개월간 50% 삭감된 월급을 받는 직원도 있었고, 6개월간 무급휴직을 들어간 동료도 있었다. 나도 35명 직원의 팀장으로써 30명을 내보내고 5명과만 근무하게 되었다. 그래서 6개월이 넘는 기간을 회사에서 지고 먹고 생활해야만 했다.

금융위기 등 경제적 난관을 경험하고 있는 나는 세 아이의 가장으로써 사교육비는 점점 높아만 가고 생활비는 늘어만 가는 상황에서 투자실패(주식형 펀드)와 고용 불안으로 인해 '진퇴양난'의 상황이다. 금융 불안과 부동산 시장의 불투명에도 불구하고 계속 재테크에 관심을 집중하는 것은 어쩔 수 없나보다. 이 외환위기 때 경험한 어려움에 기인한 학습효과 때문인 듯하다. 하지만, 현재의 경제 위기에 대처하는 방법, 무너진 권위를 다시 일으켜 세우기 위한 이버지들의 마음가짐에 대해 '자기계발을 서둘러라', '소프트파워를 키워라', '재테크 패러다임을 바꿔라', '권위 대신 존경을 받는 이버지가 되자'는 등의 다양한 구체적인 실천방법을 책을 통해서 제시받았다.

세계적인 경영사상가 말콤 글래드웰의 아웃라이어(보통사람의 범주를 넘어 뛰어난 성공을 거둔 사람들)의 성공비결은 "1만시간법칙"과 "마태복음효과"로 요약할 수 있다. 허드슨 강 기적의 us에어웨이 여객기 불시착으로 155명의 목숨을 구한 셀렌버거 기장의 영웅담(1만9000시간의 비행기록)을 예로 들면서 어떤 분야든 숙달되기 위해서 하루 3시간 10년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마태복음효과"란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마25:19)는 말씀으로 설명하고 있다.

한편, 일본 경영의 신으로 불리는 마쓰시타 그룹(최근 과감하게 파나소닉(Panasonic)으로 모든 브랜드를 통합)의 창업주 마쓰시타 고노스케는 "하늘이 가난을 주었기에 부지런함을 얻었고, 병약함을 내렸기에 건강의 소중함을 깨달았다. 그리고 충분히 교육받지 못할 환경을 선사해 다른 모든 사람을 스승으로 삼게 했다."라고 그의 어록에서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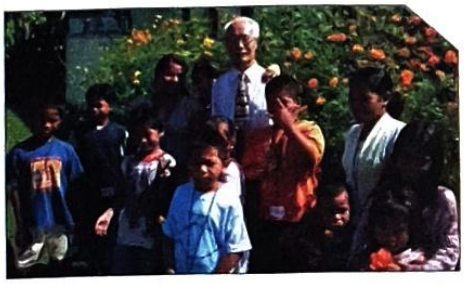
작년 153일간작정(베드로와 제자들이 물고기 153마리 잡은 사건) 새벽기도를 통해 나의 가정과 일터와 나라를 위한 기도를 드렸다. 기도와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하심을 기다리는 훈련을 하게 하셨다. 올해도 새벽기도에 참석하여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고 회사에 와서는 153일 작정 기도를 새롭게 다시 시작하면서 언제 회복될지 모르는 경기 상황과 금융대란 앞에 문제를 바라보지 않고 문제 해결책인 내안에 계신 예수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 임재 안에 들어가게 하셨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한 것처럼 요즘 주님 앞에 통곡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다. 말씀묵상과 오늘의 기도문을 같은 직장 동료들과 이메일 서비스를 통해 함께 기도의 동역을 함께 하고 있다. 어떤의 위기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일을 다 이루실 것임을 기대한다. (daesungchina@korea.com)

★독자 투고 사색의 창은 독자들의 생각과 마음을 담는 곳입니다.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참여방법 hc1260@hanmail.net (기사투고) T.255-1260-1 F. 033)257-1260



복음의 빚진 자

사이판에서 사역중인 엄창화 선교사(춘천중앙성결교회 출신) 이야기



주님! 어디든 보내시옵소서

복음의 빚진 자로서, 이제껏 나와 내 가족만을 위하여 정신없이 살아온 날들을 돌아보며 이제 내가 퇴임 후 무엇을 할 것인가?를 생각하며 기도하게 되었다. 그러던 중 어느 선교사님이었는지 잘 기억나지 않지만, 선교사역 보고 겸 말씀 전하시는 중 나도 퇴임 후 선교지에 가서 작은 힘이라도 보탤 수 있다면 하는 마음이 들었다. 그러나 내가 목회자도 아닌데, 선교지에 가면 무엇을 할 수 있을 것인가, 그냥 이제 정년퇴임하고 평안히 안주하며 내 본 교회를 섬기는 게 낫지 않을까하는 생각도 들었다. 하지만 어떤 힘에 떠밀렸는지 강하게 선교지로 부르심을 느꼈고, 이것이 사명인지 소명인지 확신하지 못하던 상황에서 오랜 시간 기도하던 중 하나님께서 아내와 나에게 같은 비전을 주셨음을 알게 되었다. 본 교회 목사님(유동선)께 의논을 드렸고, 목사님께서 소개하는 곳이 우리를 부르는 곳이리라 생각하며 "하나님, 어디서든 우리를 가장 필요로 하는 곳이 있다면 보내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였다.

낯선 땅, 사이판 작은 산호섬에서의 생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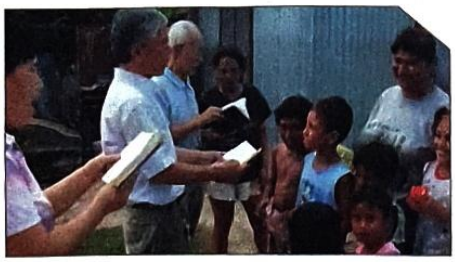
이렇게 하여 2005년 11월 1일, 이곳 사이판 작은 산호섬까지 오게 되었다. 처음 사이판 성결교회(허규문 목사님)에 왔을 땐 모든 게 낯설기만 하였다. 봉제공장에 다니던 조선족과 교민을 중심으로 했던 사역은 연방화 문제로 모든 공장이 철수하고 조선족 및 교민들이 많이 떠나면서 어려워지기 시작했다. 이처럼 한국과는 다른 환경, 생각과는 다른 상황들이 예상치 못하게 펼쳐지기도 했다. 직업이 직업이니만큼 주일학교와 중고등부 교육부에서만 봉사해 왔던 나에게 전무하다시피 한 교육부의 모습은 마음을 무겁게 했고, 원주민 사역을 꿈꾸며 왔던 나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잘못 보내진 않으셨을 텐데...하면서 잠시 회의감이 들기도 했다. 내 영의 눈이 어두워 앞이 보이지 않았으리라. 이처럼 처음에는 많은 부분이 힘겹게 우리를 누르고 있었지만, '울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는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다. '그래, 씨를 뿌리자. 싹트게 하고 자라게 하시는 이는 생명 되신 하나님이시다. 그래 열매는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며 전도하자.' 그러면서 원주민 몇 명이 교회를 찾기 시작했고, 이렇다 할 변화 없이 그렇게 2년의 기간이 흘렀다.

하나님의 역사를 사람이 어찌 측량하랴

2008년 7월 춘천중앙교회에서 선교 팀이 온다고 연락이 왔다. 이전에도 선교팀은 왔었다. 생각엔 와도 별다른 변화가 없을 텐데 하면서도 그들로 인해 사이판성결교회에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길 기도하였다. 역시 하나님의 생각과 사람의 생각은 다르고 하나님의 능력은 전지전능하시다. 중앙성결교회 청년들의 사역으로 40여명의 어린이들을 불러 모아 놓고 여름성경학교를 하였다. 40명이란 숫자는 이곳 상황으로 볼 때 기적에 가까운 숫자였다. 할렐루야!

하지만 선교 팀이 돌아가자 또 걱정이 되었다. 이들이 가고 나면 아이들은 누가 가르칠 것인가? 급한 대로 이곳에 있는 우리들이 부족한 언어이지만 아이들을 가르쳤고 우리들의 우려와는 달리 점점 아이들의 숫자는 불어났다. 50명, 60명, 70명까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때가 있다고 말씀 하셨던가? 두 손 들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감사를 드렸다. 눈물이 났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사람이 어찌 측량하랴. 우리를 보내시고 청년들을 보내시어 역사하시는 주님, 다만 우리는 그분의 도구로 쓰임을 받을 뿐이다. 지금 우리는 이 아이들 중에 장차 이 사이판 지역을 변화시킬 영적 지도자가 나올 수 있도록 기도하고 있다. 이 아이들을 가르칠 좋은 교사를 보내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한다.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제, 우리는 이곳에서 3년 6개월을 보내고, 4월 30일로 떠나려한다. 이곳에서 깨달은 바, 선교란 특별한 그 어떤 것이 아닌, 선교지에서 살아가는 사람들과 함께 삶을 살아내는 것임을 알았다. 이제, 더 힘 있고 능력 있는 자가 이곳을 도왔으면 하고 기도한다. 내 나라, 내 땅, 내 교회에서 섬기는 일도 중요하지만 가능하다면 도움을 필요로 하는 선교지에서 짧게 든 길게 든 자신의 시간을 헌신한다면 현지의 선교사님들에게도 작은 힘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며 마지막 때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온 땅에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어 하나님의 뜻이 이 땅위에 이루어지길 기도한다. 어느 위치에서든 할 수 있는 선교적 사명을 다 한 다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리라 믿는다. 이제 우리는 말 잘 통하는 우리나라에 가서 이집 저집을 기웃거리며 남은 생에 예수님을 소개할까 한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할렐루야!

[사이판 선교지에서 엄창화]

춘천성시화 리그 축구대회

춘천시 교회축구연합회가 매년 야심차게 준비한 〈춘천성시화리그〉가 올해도 관내 13개 교회 팀들이 참가하여 3월부터 7월말까지 공지천 축구장에서 매주 월요일 저녁부터 늦은 밤 11시까지 뜨거운 열기로 진행된다. 올해 3회째를 맞는 성시화리그를 통해 교회생활에서 축구가 춘천성시화를 이루는 또 다른 교회문화를 창조할 것을 기대하며 이 색다른 패러다임의 선교축구가 월드컵과 올림픽에서 보여준 것처럼 교회간의 친교를 보다 성숙하고 아름다운 그래서 진정한 교회 연합이 될 것으로 믿는다.

▶ 제 3회 춘천성시화 리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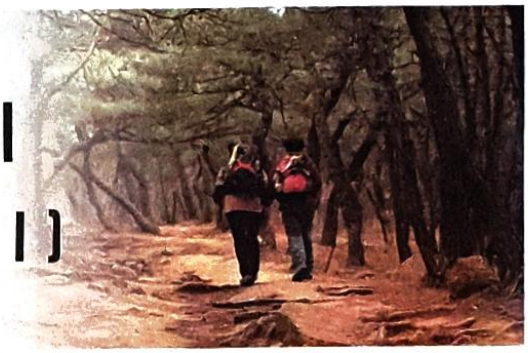
- ○ 일 시 : 2009. 3. 2~7. 27(22주간)
  ※ 매주 월요일 20:00~23:00
- ○ 장 소 : 공지천 인조축구장(A,B구장)
- ○ 주 관 : 춘천시 교회축구연합회 (회장:정학수장로)
- ○ 협 력 : 춘천기독교연합회, 성시화운동본부
- ○ 참가교회 : 13개 교회(강촌감리, 금산장로, 동부장로, 삼천동성결, 석사감리, 시온성결, 소양성결, 온누리장로, 제일장로, 중앙성결, 지내리감리, 평화감리, 효자감리) 문의: 010-8798-8782
- ○ 진행방법 : 13개 교회 22주 풀리그 (1일 8개 교회 4경기)
- ○ 경기결과 : 매주 춘교연 홈피 공고 (http://cafe.daum.net/cmfa) 매달 춘천성시신문 공고





건강을 위한 운동

똑똑한 등산이 내 몸을 살린다 (1)





「똑똑한 등산이 내 몸을 살린다」는 야마모토 마사요시의 저서(선우섭 옮김, 마운틴 북스, 2008)이다. 그는 운동생리학과 트레이닝 과학 분야의 저명한 전문가이며, 스포츠 선수, 등산인의 운동 능력 향상 연구의 권위자이다. 이 책을 쓰기 위하여 자신이 직접 실험 대상이 되어 측정 장치를 달고 수많은 산을 올랐다.

하버드 의대 교수 A. 리프는 1975년에 「세계 장수촌」이라는 책을 출판하였다. 이 책에서 리프는 장수촌 사람들의 공통점을 3가지 발견하였다. 첫째는 표고가 높고(산을 끼고 있다-히말라야(혼자 마을), 안데스, 카프카스), 둘째는 육체적 노동을 하고 있고, 셋째는 영양 섭취량이 적다(소식을 한다). 이런 특징이 잘 나타는 운동이 바로 〈등산〉이다.

그의 저서는 왜 우리가 운동을 해야 하고 운동 중에 등산이 얼마나 유익한 것인가를 운동 생리학적으로 밝혀주고 있다. 운동, 특히 등산이 우리 몸에 좋은 것을 과학적으로 설명하고 있기에 우리 몸에 대한 이해와 더불어 운동에 대한 동기부여를 해주고 있다. 그래서 건강과 운동에 관심이 많은 이때에 이 책에 소개된 내용을 중심으로 4회에 나누어 싣고자 한다.

등산과 건강

등산 중에 다치거나 병이 났을 때에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까? 이것을 생각하는 학문 분야는 의학이다. 한편 이러한 불상사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또 안전하고 쾌적하며 건강하고 유익한 등산을 하기 위해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를 생각하는 학문 분야가 운동생리학이다. 예를 들어 피로감 없는 등산을 하기 위해 산속에서 신체를 어떻게 움직이면 좋은지 또는 평상시에 어떤 트레이닝을 하면 좋은지를 과학적인 자료를 통해 설명하였다. 이와 같은 지식을 습득하면 쾌적한 등산을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등산 중에 다치거나 병에 걸리는 것을 예방할 수 있고, 아울러 수준 높은 등산도 가능해 질 것이다.

1) 운동과 건강

현대사회에는 고혈압, 동맥경화, 심장병, 뇌졸중, 당뇨병 등 우리가 성인병(생활습관병)이라고 부르는 많은 질병이 만연해 있다. 이러한 성인병 발병의 최대 원인은 운동 부족과 영양 과다 섭취이다. 그래서 이와 같은 병들을 '운동부족병' 이라고 부른다.

이 병의 전형적인 모습은 운동부족과 영양의 과다섭취가 중복되면 체내 에너지원이 과도하게 축적되고 여분의 에너지원은 지방으로 변화하여 체내에 축적된다. 지방의 일부는 콜레스테롤로 변화하여 혈관, 특히 동맥혈관이 쌓여 동맥경화를 일으킨다. 그러면 혈관이 좁아져 고혈압이 진행된다. 그리고 최후에는 혈관이 막혀 산소와 영양분을 운반할 수 없어서 세포가 죽게 된다. 동맥경화는 심장이나 뇌와 같은 인체에서 가장 중요한 기관인 동맥 혈관에 주로 발생하기에 심각한 문제를 초래한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길은 운동이 최적이다.

2) 건강에 좋은 유산소 운동

운동을 하면 지방이 연료로 사용된다. 따라서 성인병의 원인인 지방의 과잉 축적을 예방할 수 있다. 지방을 연소시키기 위해서는 산소가 필요하기 때문에 운동은 산소를 섭취하는 데 관여하는 호흡·순환계를 활발하게 자극한다. 따라서 운동을 규칙적으로 하면 혈관에 콜레스테롤이 축적되는 것을 막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축적된 콜레스테롤을 제거하여 혈관 탄성을 높이고 모세혈관 수를 증가시킬 수 있다. 이와 같이 음식물을 산소로 연소시켜 에너지를 생산하는 운동을 유산소 운동이라고 한다. 낮은 강도로 장시간 지속할 수 있는 운동이 유산소 운동이다.

3) 등산은 이상적인 유산소 운동

유산소 운동은 조깅(가볍게 뛰기), 걷기, 마라톤, 자전거 타기, 수영, 등산 등이 있다. 그 중에 쉽게 할 수 있는 운동이 조깅, 걷기, 등산 등이다. 조깅은 좋은 운동이지만 심장, 혈관, 뼈, 관절에 커다란 부담이 될 수 있다. 특히 중·장년층에는 더욱 그렇다. 그 다음은 걷기인데 역시 좋은 운동이지만 단조롭고 지속하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 그런 면에서 등산은 걷기의 장점을 살리고 단점을 줄인 이상적인 유산소운동이라고 할 수 있다.

4) 막대한 에너지를 소비하는 등산

건강을 위해 운동을 할 때는 심박수가 분당 120회 이상 되는 시간이 30분 정도 지속되게 해야 한다. 심박수는 심장이 1분간 몇 회 박동을 하였는가를 나타내는 것으로 운동의 강도 또는 에너지 소비량 등을 추정할 수 있는 생리적 지표이다. 다른 척도로 바람직한 운동 강도를 이야기하면, 하루에 200-300kcal 정도의 에너지를 소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에너지 소모를 시간당으로 비교하면 마라톤이 등산보다 사용하는 에너지는 훨씬 많다. 그러나 운동 시간은 등산이 훨씬 많다. 따라서 사용된 에너지는 등산이 더 많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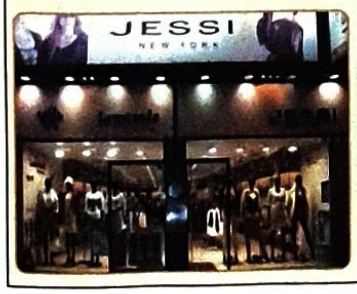
5) 지방 감량에 효과적인 등산

조깅이나 걷기 등은 저중강도의 운동(하기에 따라서 저강도로 할 수 있고, 또 중강도의 운동이 될 수도 있다)이고 등산은 중강도 그에 비해 마라톤은 고강도의 운동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 운동 강도에 따른 지방 감량의 측면에서 보면 걷기나 조깅과 같은 저중강도의 운동을 했을 때는 지방과 탄수화물이 약 반반씩 연소된다. 그러나 빨리 달리거나 고강도의 운동을 할 때는 탄수화물만 에너지원으로 사용하게 된다. 즉 지방은 소모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지방 감량(살을 빼는)을 목적으로 하는 운동이라면 저중강도의 운동이 효과적이다. 그러나 중강도 운동인 등산은 운동을 시작한 직후에는 탄수화물의 연소 비율이 높고(60:40), 지방은 별로 연소되지 않는다. 그러나 운동을 계속하면 점차로 지방의 연소 비율(40:60)이 높아진다. 그러므로 지방은 저중강도의 운동을 장시간 지속했을 때 가장 쉽게 연소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등산은 이런 타입의 운동이다. 그러므로 크게 힘들이지 않고 지방을 줄이고 싶은 사람은 정기적으로 산에 가는 것이 가장 좋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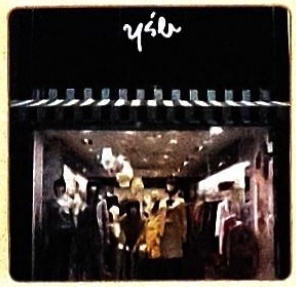
6) 마음의 건강과 등산

등산을 하므로 몸에서 일어나는 유산소 운동의 효과뿐만 아니라 나무에서 나오는 유익한 기운이 몸의 건강에 크게 도움이 되는 것은 말할 것도 없다. 그러나 현대인들에게 몸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정신건강이다. 등산을 통해 성취감과 더불어 하나님의 질서 속에서 안식을 경험하기도 한다.

[편집위원 고 재 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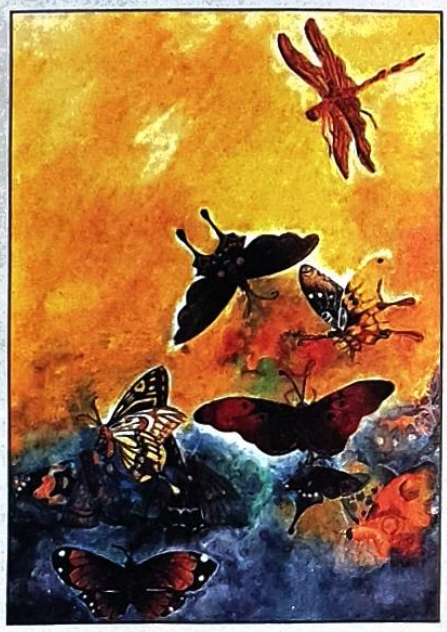
제시뉴욕 · 레모네이드
럭셔리한 아름다운 멋


결혼예복 · 숙녀복 전문
패 · 션 · 리 · 더 제 시
모녀가 함께 입는 명품
많은 연예인이 즐겨 입는 명품
제시뉴욕 본점
대표 전 순 천 집사(순복음춘천교회)
☎ 252-7262
위치 조양동 신한은행강원본부 앞

예 스 비
에스비 브라운상가

최고의 품질과 저렴한 가격!
"당신을 20대의 아름다움으로 초대합니다."
대표 전 순 천 집사(순복음춘천교회)
☎ 253-2001
위치 브라운상가 프리머스 극장 입구

춘천성시화운동본부

예수 안에서 본 예술



이종화 / 생명-빛 속에서 / 종이에 채색 / 1984년

<작품설명>
'생명-빛 속에서'는 잠자리와 나비 몇 마리를 실제의 크기로 다룬 진채소품입니다. 작품으로 곤충들이 벌이는 축제의 장과도 같은 화면의 비탕은 위와 아래로 나뉘어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빛과 어둠을 배경으로 하여 생명체가 겪고 있는 질서와 혼돈, 생명과 소멸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편집위원 이관형]

몸과 마음을 수리 중

몸과 마음을 수리하기 위해
병원이라는
자동차 수리공장에 와 있다.

이곳을 고치면
저곳을 고치게 되고

때로는
재생 불능하여
폐차 처분을 받는
환자를 종종 본다.

수리 재생이 가능하여
다시
도로를 질주할 수 있을까?

그것은
하나님만이 아시는 일.

- 시. 박 유석

| 좌충우돌 건강이야기 15

침묵의 살인자



고석연
(가정의학과)

뒷목이 당기고 머리가 아프다면서 고혈압 때문이라고 병원에 오는 사람들이 꽤나 많다. 이때 혈압을 재면 정말로 혈압이 높은데 그럴 때마다 의사의 입장이 참 난처해진다. 고혈압이란 질병은 증상이 없기 때문이다. 그런데 환자는 뒷목이 당기고 머리가 아프고 혈압도 높다. 이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사실 설명은 간단하다. 혈압은 아주 변동이 심하다. 예를 들면 스트레스를 받을 때면 으레 혈압이 올라가고, 감기 같은 질환을 앓을 때도 혈압은 올라간다. 심지어 커피를 마시거나 담배를 펴도 혈압은 올라가고 잠을 못잔 경우엔 천정부지로 올라간다. 다시 말해서 뒷목이 당기고 머리가 아프면 혈압이 올라가는 것은 당연하다. 몸이 아플 때면 아픈 몸을 지키기 위해서 심장은 열심히 일을 하고 혈관은 수축해서 혈압이 올라가는 것이다. 그러나 막상 환자에게 이런 설명을 해도 환자는 쉽게 믿으려 하지 않는다. 자신이 머리 아픈 이유는 혈압 때문이라고 강하게 믿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다시 강조하지만 고혈압은 증상이 없다.

그런데 증상도 없는 고혈압을 치료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놀랍게도 고혈압을 치료하지 않으면 우리의 수명이 무려 10년에서 20년 정도 단축된다고 한다. 물론 죽기 전까지도 치료하지 않는 사람의 50% 정도는 심부전, 심비대, 망막질환, 중풍, 신부전 등으로 고생을 한다고 한다. 병명을 나열해 놨기 때문에 느낌이 크게 와 닿지 않을 수도 있는데 일반적인 증상으로 설명을 하면 이야기는 달라진다. 심부전 환자는 누우면 숨이 차서 잠을 잘 수 없고 걸을 때마다 숨이 차고 다리가 붓게 된다. 망막질환을 앓는 경우는 실명을 하여 볼 수 없게 된다. 신부전인 경우에는 매일 집에서 복막투석을 하던지 병원에서 3일에 한 번씩 혈액투석을 해야 한다.

침묵의 살인자는 어떤 질환의 별명일까? 그렇다. 그것은 바로 고혈압의 별명이다. 고혈압이 이런 별명을 얻게 된 것은 바로 병의 특성 때문이다. 다른 질환과 달리 고혈압은 증상이 전혀 없다. 그래서 자신이 고혈압이란 병이 있는지 없는지 알 방법이 없다. 정기적인 혈압 측정을 통해서만 병을 발견할 수가 있다. 그러나 고혈압을 치료하지 않으면 일어날 수 있는 너무 나쁜 결과들 때문에 고혈압은 아주 중요한 병이 되었고, 치료를 꼭 해야 하는 대상이 되었다.

처음 고혈압을 발견하게 되면 대부분 치료를 거부한다. 한번 약을 먹기 시작하면 평생을 먹어야 한다는 부담감 때문이다. 그래서 운동도 해보고 살도 빼보고 싱겁게도 먹으면서 혈압을 조절하려고 노력을 한다. 그러나 혈압은 잘 떨어지지 않고 결국 약을 먹게 된다. 그런데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있다. 약을 먹지 않고 혈압조절이 안 되는 기간이 길면 길수록 우리의 수명은 점점 짧아지고, 우리가 다른 나쁜 병에 걸릴 확률은 점점 높아진다는 것이다. 혈압약은 하루라도 빨리 먹는 것이 중요하다.

가장 지혜로운 방법은 이것이다. 혈압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 바로 약을 복용하면서 생활치료를 병행하는 것이다. 물론 생활치료는 싱겁게 먹기, 운동하기, 살빼기, 야채와 과일 먹기이다. 본인 스스로 생활치료라는 노력을 하면 혈압을 더 낮출 수 있기 때문에 하루에 복용하는 약의 개수를 하나라도 더 줄일 수 있고 고혈압의 진행도 늦출 수도 있다. 운이 좋은 경우는 약 복용을 장시간 중단하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고혈압 치료는 빠를수록 좋다.

고혈압은 꼭 나만 아는 은밀한 죄악 같다. 빨리 해결해야 하는 것이다. 겉으로 드러나는 것은 하나도 없는데 결국은 우리를 죽음으로 이끈다.

고민에 대해 명쾌한 해답을 주는 신앙상담2

기근이 있을 때에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나요?



아가부스라 하는 이가 일어나 영으로 보이되 온 세상에 큰 기근이 있게 되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우스 가이사 때에 그렇게 되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행11:28). 먼저 이런 대언이 우리에게 없음을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근심해야 할 것입니다(고후7:10). 또한, 하나님께서 천히 하시고자 하는 일을 요셉과 다니엘과 같은 이를 통해 대통령에게 보이시기를 바랍니다(창41:25; 단2:29; 삼하21:1).



첫째, 배우고 확신하게 된 것들 안에 거하라는 것입니다(딤후3:14).

우리는 성경을 배워왔습니다. **"이제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그러나 누구든지 물러가면 내 혼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히10:38)는 말씀을 다양한 방식으로 들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히13:5-9 말씀 "너희의 행실에 탐욕이 없게 하고, 가진 것들로 만족하라. 이는 그분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셨음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님은 나를 돕는 분이시니, 사람이 내게 행할 것을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라 하노라. 너희를 다스리며 너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말해 준 자들을 기억하고,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며, 그들의 믿음을 따르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여러 가지 이상한 교리들에 끌려 다니지 말라. 마음은 은혜로 굳게 함이 선한 것이요, 음식물로 할 것이 아니니, 음식물에 지배를 받는 자는 유익을 얻지 못하였느니라." 과 약4:13-17 말씀 "자 이제, 오늘이나 내일 우리가 아무 도시에 가서 일 년을 지내며 사고팔고 하여 이득을 얻으리라, 말하는 너희여,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잠시 나타났다 사라져 버리는 수증기니라. 너희가 마땅히 말하기를 주님께서 원하시면 우리가 살 것이요,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제 너희가 스스로 자랑하며 기뻐하니, 그러한 기쁨은 다 악한 것이니라. 그러므로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아니하는 자에게는 그것이 죄가 되느니라."가 우리의 것이 되어야 합니다.

둘째, 기근의 때인 지금은 성경대로 청지기직을 실천할 때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일어나사, 다시 살아나신 것은 그분이 주님이신 것을 계시한 것입니다(롬14:7-9; 고후5:14-15; 행17:31; 딛2:11-14). 우리가 예수님께서 정말 주님이신 것을 알았다면 자신을 위하여 살지도 죽지도 말고, 살아도 주님을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님을 위하여 사는 주님의 것이기에 자급자족뿐 아니라 성도들을 위한 모금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것입니다(고전16:1). 청지기 직분은 신비롭고 놀랍습니다. 나누는 사람은 주님께 드려서 나누고, 받는 사람은 주님께 받아서 사용하는 것입니다. 성경대로 청지기직을 실천해 본 사람이라면 꼭 필요한 만큼 나누게 하시고, 꼭 필요한 만큼 받게 하시는 놀랍고 신기한 체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만물의 소유주이신 주님께서 살아계셔서 청지기들의 나눔에도 깊이 관여하시기 때문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불의한 청지기는 이러한 아름다운 영적 체험이 무엇인지조차 알지 못하며, 결국 헛된 열매로 끝나고 맙니다. 회중교훈서(전도서) 2장 26절 말씀 그대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 보시기에 선한 사람에게는 지혜와 지식과 기쁨을 주시거니와, 죄인들에게는 고생을 주시고 그로 하여금 모아 쌓게 하사 하나님 앞에서 선한 자에게 주게 하시나니, 이것도 헛되어 영을 괴롭게 하는 일이로다."**

염려되어 지체들의 나눔과 세상의 후원 개념은 전혀 다른 것임을 말하고 싶습니다. 지체들의 나눔은 청지기 개념으로서 내 것이라는 소유의식이 없고, 다만 사용과 관리의 책임만 인식하는 개념입니다. 주님 뜻대로 나누고 사용하면 끝입니다. 그런데 세상의 후원 개념은 내 돈, 내 소유로 선심을 베푸는 것이기에 자기 의가 들어가 있게 마련입니다. 내 돈, 내 물질로 내가 후원하고 내가 돕기에 내가 관여하고 내가 보상받아야겠다고 생각하는 이러한 자기 의로 충만한 사람들을 성경은 정확히 불의한 청지기라 일컫는 것입니다. 선한 청지기는 칭찬과 영원한 보상이 있지만, 불의한 청지기는 자기 보상마저 다 잃어버리고 영원히 손실을 보게 되는 가장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끝으로 나머지 것들은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그리하면 주실 것입니다(약1:5-8).

위 성경 말씀들은 직접 찾아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어려운 때 주님께서 모든 일에서 당신에게 총명을 주시기를 원합니다(딤후2:7). [편집위원 이 영 규]

예 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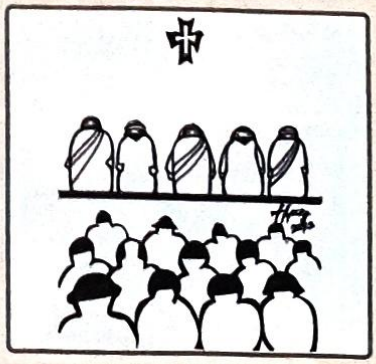
새로운 가능성

토종 카페[민들레 영토]가 '스타벅스'를 제쳤다고 한다. 10여 년 전 하루 1백 명 정도의 고객이 찾아오던 이곳은 지금은 하루 1만 명이 찾아온다. 민들레 영토의 창업자는 지승룡 대표. 지 대표는 36세에 결혼생활이 파탄에 이르면서 목회를 그만둘 수밖에 없었다고 한다. 시련으로 말미암은 고통 속에 괴로워하던 지 대표는 사업을 생각하면서 3년간 닥치는 대로 집 근처 도서관에서 2천권의 책을 읽으며 패배의식을 달랬다고 한다. '하나님 사랑과 어머니의 사랑'을 모토로 운영하는 전혀 새로운 영역을 개척하여 현재 20여개의 점포를 개설했다. 당신은 어떠한가? 시련을 기회로 삼자. 당신도 새로운 가능성에 도전하기에 늦지 않았다.

[편집위원 최 상 도]

성 시 만 평

이 관 형 · jysince93@hanmail.net



오늘 새로 출석한 교인
예수, 마태, 마가, 누가...

춘천성시신문

편집위원장 : 최영조
편집 위원 : 고재만 권기찬 김미경 김춘배 이관형 이영규 유병준 정제호 조영춘 조나단 최상도

〈원고 투고 및 광고 문의〉

200-080 춘천성시화운동본부
춘천시 운교동 174-3 Y신협3층
E-mail : hc1260@hanmail.net
대표전화 : 033)256-1260~1
FAX : 033)257-1260

숙녀 성인 전문학사 학위 취득

주부 · 숙녀 성인 만학도 특성화 전문학교



● 야주저렴한 학비! ● 교통이 편리한 신설동 로타리 소재
● 주3일수업 ● 주간반, 야간반 ● 최고의 교육환경!

모집학과 / 전공			모집인원
2년과정 안학도 특별과정	사회복지학과	· 전문학사학위 · 사회복지사2급 · 보육교사2급 · 건강가정사	주간 40
			야간 40
	아동학과		주간 40
	생활체육학과		야간 40

남서울전문학교 교양프로그램
- 어린이 영어 지도사 과정
- 미술 치료사 양성과정
- 음악 치료사 양성과정
- 문예 창작(작가)과정
- 대체 의학 과정
- 한문 지도사 과정
- 스포츠 댄스 지도자 과정

■전철 1 · 6호선 <동묘역> 3번출구에서 신설동로타리 방향으로 90m 대로변 위치

남서울 전문학교

02) 2232-2772
010-3275-2700
www.ntc.ac.kr

춘천성시화운동본부

여성이 만드는 건강한 세상
춘천 YWCA
(Young Women's Christian Association)



올해로 창립 43주년을 맞는 춘천 YWCA는 회원 1500명에 직원 30명, 부설기관으로 여성인력개발센터와 청소년문화의집, 소양정보화도서관 그리고 어린이집을 비롯해 강원학사까지 거느린 조직으로 성장하여 오늘에 이르렀다.

■ 지역 기독교여성지도자들의 자발적 Y운동으로 출발

춘천 YWCA는 1966년 3월 17일 기독여성운동에 뜻을 둔 15명(최연실 이경에 정형숙 장옥주 김규봉씨 등)이 춘천중앙감리교회에 모여 창립예배를 드림으로 시작되었다. 이후 청소년활동과 환경운동, 그리고 여성직업훈련과 선교, 생명사랑공동체 등을 바탕으로 지속적으로 Y운동을 전개해 지역을 섬기는 공동체로서의 사명에 최선을 다해왔다.

그런데 춘천 YWCA는 출발점에서 놀라운 사실을 찾을 수 있다. 여타의 기관이 대부분 외부의 지원이나 본부의 하부조직으로 출발한 데 비해 춘천 YWCA는 이 고장의 기독교여성지도자들이 Y운동의 절실함을 깨달아 자발적으로 출발했다는 점이다. 그래서 20여년이 지난 88년 당시로는 파격적으로 회관건립에 착수 1년 만에 봉헌식을 가질 수 있었다.









총건평 560평(지하1층 지상4층)의 대형건물은 그 즈음 춘천에서는 여러 화제를 불러 모았다. 당시의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해보면 이는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지만 당시를 회고하는 대부분의 중경회장들은 지금도 그 감동을 잊을 수 없어한다. 그때만 해도 춘천에는 뷔페음식전문점이 없어 Y가 기의 독과점 업을 하다시피 하여 회원들이 밤낮을 가리지 않고 뛰어 건축비(4억1천만원)의 대부분을 마련했다. 기도와 헌신 그리고 수고와 땀으로 지어진 이 건물은 춘천시민들에게 자랑거리였다.

■ 기독교정신을 바탕으로 여성 지도자 양성

그 후 춘천 YWCA는 지속적으로 성장해 지금의 규모를 유지하게 되는데 무엇보다 회원들의 단합된 의지와 신앙훈련이 바탕을 이루었다. YWCA운동은 1855년 영국의 런던에서 시작되어 교파와 국경을 초월한 기독청년여성회이다. 글자 그대로 기독교정신을 여성들의 실생활과 사회에 적응시켜 지도자를 양성하는 크리스천 운동으로 현재는 전 세계에 122개국의 약 2천 5백만 명이 이 운동에 동참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도 약 9만 명의 회원이 Y운동에 정진하고 있다.

춘천 YWCA가 도약하는 두 번째 계기는 1999년 춘천여성인력개발센터가 설립되면서부터이다. 저소득층 여성들의 자활과 직업훈련기관으로 우뚝 선 센터는 현재까지 약 8천명이 직업훈련을 수료했으며, 그중 4천 3백 명이 취업에 성공했다. 지난해만 해도 1760명이 교육을 이수해 새로운 삶을 꾸리는 중이다.

여성인력개발센터를 비롯해 청소년문화의집 어린이집 그리고 강원학사를 통해 춘천 YWCA는 저소득층 여성은 물론 여성의 지위향상과 지도력 향상을 위해 부단하게 노력하고 있다.

■ 생명사랑 실천, 그리고 새로운 도약

지난 1월 16일 22대 회장으로 취임한 이희수 회장은 대학시절부터 Y운동에 동참해 실무 경험(광주 YWCA 근무)까지 쌓았다.

"Y운동의 정신은 한마디로 생명사랑입니다."

이 회장이 강조하는 생명운동은 2000년대에 접어들면서 한국 YWCA가 본격적으로 벌리는 '민들레운동'을 가리킨다. 창조주의 창조섭리를 존중하는 이 운동의 실체는 성서 속에서 찾을 수 있다. 그 중의 하나가 먹거리운동이며, 아나바나환운동이다. 무엇보다 인간을 소중하게 여기는 절대가치이다.

새로운 도약을 꿈꾸는 춘천 YWCA는 교회와 하나 되는 운동부터 새롭게 시작하려고 한다. 성서를 바탕으로 '행복한 시 읽기' 교실을 열어 교회를 방문할 계획이며 시민을 대상으로 리더교육도 함께할 예정이다. 특히 가정의 가치가 새롭게 조명되는 요즘 자녀와의 대화법은 물론 어머니교실도 함께 개최해 가정의 가치를 강조해 생명운동이 뿌리내려지도록 할 것이다.

섬김과 나눔 살림의 고유 가치는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여성들 행복의 근원이다. 부단히 지난 43년간 이 고유성을 지키기 위해 노력한 춘천 YWCA는 서서히 지천명을 눈앞에 둔 여성처럼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기도 속에서 살아 움직이는 하느님의 기관으로 거듭나려한다.



춘천YWCA 이 희 수(李姬秀) 신임회장 약력

- 1953년 4월 27일, 강원도 춘천출생
- 춘천여고, 강원대 사범대 및 동 대학원 졸업
- 고등학교 교사역임
- 강원도청 전문위원 역임
- 현 도서출판 대희 대표
- 한국수필 작가회 부회장 역임
- 저서 묵상집 '씨앗은 숲의 약속입니다',
- 수필집 '가슴으로 흐르는 강' 외 다수
- 한국수필 문학상
- 제 1회 수필문학상 수상

[자료제공. 춘천 YWCA 요선동 4-6, ☎254-4878, www.chchywca.or.kr]

색동저고리
한복연구소
한복사랑 22년
마음과 정성으로 한복의 멋을 이어나갑니다
(신부님께는 예쁜 아암을 선물로 드립니다)
투님을 모시듯 정성껏 모시겠습니다
심경 김 기 순 권사(춘일교회)
☎ 243-9019, 011-1788-8406 [약사동 마을금고 옆]

각 교회 찬양단의 활성화와 다양한 찬양, 찬양단간의 교류를 위한
2009 춘천 찬양 축제
● 일 시 : 2009. 3. 21(토) 오후 3시
● 장 소 : 퀸앙성결교회
● 접수기간 : 3월 8일(주일)까지 인터넷 접수 제이락 클럽(club.cyworld.com/jloc)
● 참가자격 : 춘천시 소재 교회의 찬양단
● 참가조건 : 참가곡은 찬양단원이 직접 악기를 연주하고 찬양을 불러야 함(MR사용은 안됩니다)
● 자유곡(2곡) : 장르에 상관없이 자유곡준비
● 찬양시간 : 자유곡 두곡 8분 이내로 준비
● 참 가 비 : 3만원(당일 접수)
● 시 상 : 대상, 금상, 은상
● 참 가 상 : 축제 당일 영상 dvd제작예정
● 대회문의 : 제이락 클럽
club.cyworld.com/jloc
박유식 전도사 010-9636-9856
이영규 전도사 010-2872-4727

기독문화산책 — 영화이야기<21>

쿼바디스 (Quo Vadis?)



전 세계의 영화팬치고 〈벤허〉와 더불어 〈쿼바디스〉를 모르는 사람이 있을까?

사도 베드로의 회개와 함께 로마에서의 순교의 과정을 중심으로 로마 장군 마커스의 영적인 변화를 네로의 폭정 및 만행과 맞물려 장대한 규모로 만들어진 이 영화는 수차례 재상영되고 TV에서도 무수히 방영되던 유명한 영화이다.

이 영화는 폴란드의 노벨상 수상작가 '헨리크 생키에비치'가 쓴 동명 소설을 영화화 했는데 이 작품을 위해 로마에서 15년을 지낸 그는 이 작품으로 당대의 베스트셀러 작가가 되었으며 노벨문학상을 수상하였다. 벤허보다 앞서 만들어진 이 작품은 이전에 세 차례 영화화 되었다고 한다. 토키(유성) 칼라로는 이 마빈 를로이의 대작이 처음이다. 그 후 2001년 폴란드 감독 '예르지 카발레로비치'가 만든 쿼바디스도 있는데 이 영화만큼의 호응은 얻지 못한 듯하다.

7500만 불의 최고 거액의 제작비와 기획에서 완성까지 15년, 1200명의 목수가 250만평 대지 위에 4년이 걸려 지은 세트, 5만 명의 엑스트라 동원에 63마리의 사자가 등장하며, 3만 2천벌의 의상을 새로 만들었고, 90만 척의 필름을 소모했다고 한다. 음악은 이 같은 대작 영화라면 빠지지 않는 미클로스 로작, 촬영엔 컬러 메트로스코프, 화면 효과를 잘 살린 로버트 셔티츠. 주요 출연진으로는 로마 장교 마커스에 미남배우 '로버트 테일러', 노예로 끌려온 공주 리지아에 버드나무처럼 가는 허리의 미녀 배우 '데보라 카', 네로 황제에 이태리의 대표적인 배우 '피터 유스티노브', 지하 교회에서 설교하는 베드로에 핀레이 커리, 특히 네로 황제역을 맡은 피터 유스티노브의 연기는 지금까지 명연기로 남아 회자되고 있으며 골든 글로브 남우조연상을 그에게 안겼다.

제목은 원래 "쿼바디스 도미니(Quo Vadis Dominie)"?에서 나온 말로 '나의 양들을 위하여 죽으러 가노라' 하는 예수님의 환영을 보고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한 베드로의 물음을 라틴어로 번역한 것이었다. 베드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회개하여 로마에 기독교를 전파하며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리는 순교를 하게 된다. 로마를 불태우며 시를 읊은 네로가 그 죄를 기독교인들에게 전가하며 경기장에서 사자 밥이 되게 하는 형벌로 박해를 일삼는 과정에서 로마 장교 마커스가 아름다운 노예처녀 리지아와의 사랑을 통해 영적인 회개가 이루어지는 감동적인 작품이며, 진실한 사랑의 진수를 배울 수 있고 진정한 종교의 의미를 새겨 볼 수 있으며 우리 인간의 궁극적인 목표를 설정하는데 도움을 주는 영화이다.

콜로세움 경기장을 가득 메운 로마 군중의 규모는 나중 리들리 스콧의 글레디에이터에서 모방할 정도로 그 웅장한 명장면의 하나로 기억되고 있다.

[편집위원 김 춘 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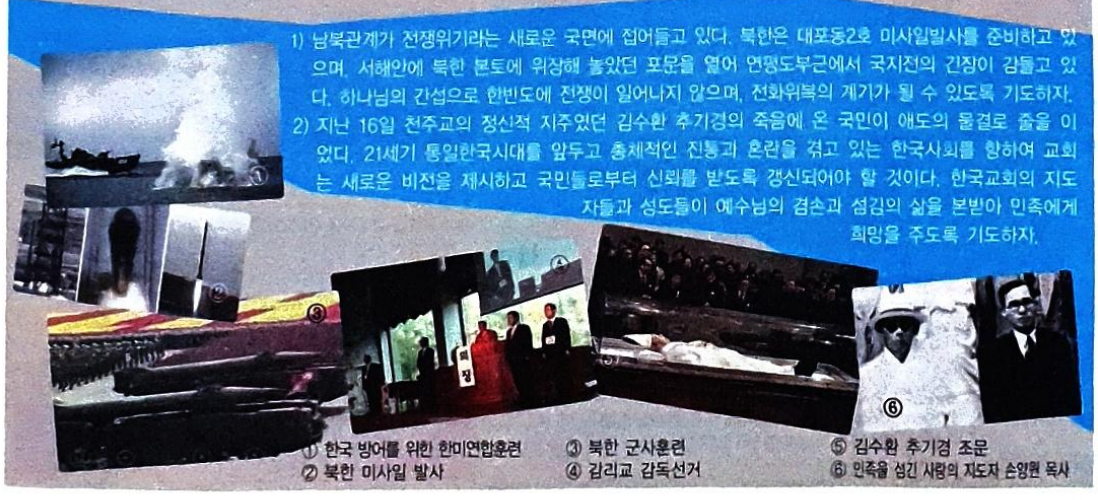


※ 매월 둘째주 목요일 저녁 7:30 늘사랑교회에서 성시신문에서 소개한 영화를 상영합니다.

현 시국을 바로보는 눈!

[사진과 함께 하는 중보기도]

다시 긴장이 감도는 남북관계 | 한국 기독교 신뢰회복



1) 남북관계가 전쟁위기라는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고 있다. 북한은 대포동2호 미사일발사를 준비하고 있으며, 서해안에 북한 본토에 위장해 놓았던 포문을 열어 연평도부근에서 국지전의 긴장이 감돌고 있다. 하나님의 간섭으로 한반도에 전쟁이 일어나지 않으며, 전화위복의 계기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자.

2) 지난 16일 천주교의 정신적 지주였던 김수환 추기경의 죽음에 온 국민이 애도의 물결로 줄을 이었다. 21세기 통일한국시대를 앞두고 총체적인 진통과 혼란을 겪고 있는 한국사회를 향하여 교회는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고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받도록 갱신되어야 할 것이다. 한국교회의 지도자들과 성도들이 예수님의 겸손과 섬김의 삶을 본받아 민족에게 희망을 주도록 기도하자.

① 한국 방어를 위한 한미연합훈련
② 북한 미사일 발사
③ 북한 군사훈련
④ 김리교 감독선거
⑤ 김수환 추기경 조문
⑥ 민족을 섬긴 사랑의 지도자 손양원 목사

〈후원자를 찾습니다〉

농 협 172242-51-085114
와이신협 04073-12-009998
예금주 춘천성시화운동본부

성시화를 위한 3천후원자 모집일
1구좌 개인 2천원 단체 1만원
(성시화를 위한 구독헌금에 동참합시다)

[성시화 1월 후원자 명단]

갈릴리교회		거성교회	
광명교회		나눔교회	
늘사랑교회		동신교회	
사암교회		새춘천교회	
세인교회		소양제일교회	
순복음열린교회		순복음춘천교회	
순복음하나교회		양의문교회	
예담교회		예수촌교회	
온누리교회		주영광교회	
주향교회		춘천광염교회	
춘천기독교연합회		춘천동부교회	
춘천영성교회		춘천북부교회	
춘천와이신협		춘천일신교회	
춘천제일감리교회		평화실로암교회	
한빛교회		강북성결교회	
기독무용선교회		국민일보 춘천지사	
영광한의원		제시뉴욕	
천일현수막		행복재가장기요양기관	
강선희	강옥지	강진욱	강태량
고순덕	김관수	김기태	김태숙
김라현	김영숙	김미경	김미경2
김미경3	김민섭	김복심	김성국
김성희	김영근	김영영	김영숙
김영순	김영일	김요섭	김은주
김재홍	김정혜	김종은	김종익
김종천	김진성	김현미	김현배
김현철	김희경	남상구	류재웅
마호숙	민병순	박난영	박동환
박려희	박인관	박정애	박제자
박충근	박필상	박형숙	배진철
변춘자	석지찬	송난의	신성균
심강하	안미애	안현주	양금환
오순자	오홍수	원희정	유갑순
유근창	유병준	유성현	유인혁
유재형	윤성자	윤예자	윤홍묵
이계문	이규현	이내리	이동인
이명순	이무식	이병일	이상돈
이상만	이수항	이순자	이영진
이용규	이원근	이원기	이원영
이윤숙	이정이	이진주	이태경
이학규	이혜인	임재철	임창수
장기남	장기영	장덕례	장선정
장소영	장소희	장요한	장주현
장창순	전영득	정규시	정미경
정은하	정재근	정재현	정주면
정찬복	조건이	조명호	조소현
조은제	조정일	조정자	지경희
차경자	최계희	최명숙	최상호
최윤용	최종덕	최춘영	최혜영
탁광희	한성아	한순수	현희현
함종현	허미정	허순영	허연영
허인영	홍순덕	홍순신	홍대기
황병천	황은주	황정섭	

SSO TOTAL DESIGN
쏘인테리어
교회건축연구소
대표권 승 갑 장로(제일장로교회)
033-242-5573 / 018-330-0433 / 010-4330-0433
1 OFFICE : 춘천시 퇴계동 891-1 대원B/D 7 F
2 OFFICE : 춘천시 효자3동 607-2
STUDIO : 춘천시 서면 당림 1리 81-5

교회현수막만 합니다
예수님 향기
꼭 필요하시면 그냥 해 가세요 (개척미교회)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www.chunill.com
1001design@hanmail.net
춘천시 효자1동 660-8 (동성교회 앞)
천일디자인 T. 255-5722 F. 256-5722
전 천 일 장로



모나운동으로 부흥하는 지역 교회

원종국 목사
동부연회 감독, 춘천제일감리교회

우리는 지금 함께 가져야 할 꿈, 비전이 있다.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부흥이다. 교회부흥의 꿈이 이루어질 때 나와 내 집이 복을 받게 된다. 성경에서 교회부흥의 모델로 예루살렘의 초대교회가 이상형의 교회였다. 복음전도가 시작 된지 몇 날이 못 된 예루살렘 초대교회에 이런 놀라운 부흥이 일어난 것이다. 도대체 이런 교회부흥의 근원이 어디에 있었을까?

첫째는 성령 충만한 데 있었다. 예루살렘 교회는 함께 모여 기도하는 중에 성령 충만의 역사가 일어났다. 여기에 교회부흥의 키가 있다. 기도하기 위해 **〈모이는 운동〉**이다.

둘째는 말씀을 담대히 전파하였다.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다 큰 은혜를 받았다고 하였다. 성령 충만의 결과는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사신 그리스도라는 데 확신을 가지고 담대히 전파하게 되었다. 복음전파는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확신에 넘쳐 **〈나누는 운동〉**이다.

그 결과 예루살렘 교회에는 회개의 역사가 나타났고, 기사와 표적이 나타났다. 초대교회는 이런 표적과 기사를 체험한 결과 사람들에게 어떤 반응이 일어났을까? 전도의 문이 크게 열린 것이다. 이렇게 초대교회는 모여서 기도하고 흩어져서 복음을 나누는 기도 모음운동, 전도 나눔운동이 초대교회 부흥의 키였다. 이 운동이 살아나는 현대 교회에도 부흥이 일어날 수 있다. 회개역사가 일어나고, 기사와 표적이 나타날 수 있다.

초대교회는 또 하나의 아름다운 미덕이 있었다. 즉, 가진 것을 모으고 나눈 일이다. 성령 충만한 성도들은 앞 다투어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서로 물건을 내놓았고, 그 결과 초대교회는 종말론적 신앙공동체이면서도 가난한 이가 없는 행복한 공동체가 되었다.

이것이 초대교회의 부흥의 실체였다. 기독교역사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부흥의 이상적인 모델이다. 오늘날 교회들이 침체되는 원인이 무엇인가?

오늘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원하심과 교인들이 원하는 바가 다르다는 사실에 있다고 나는 진단한다.

지금 우리 교회들은 주님이 원하는 것과 교인들이 원하는 것이 과연 일치할 수 있을까? 초대교회를 통해서 주님이 하신 일은 주님이 교회에 원하신 일이었다. 그 때 교회는 건전하게 부흥했다. **기도와 전도는 교회부흥의 영적 모음나눔의 최고의 방식이다. 그리고 물질적인 모음과 나눔의 운동은 현실에서 교회부흥을 뒷받침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표현하는 실제의 방식이다.**

오늘날 교회부흥의 참 길은 최우선이 모여서 기도하는 교회가 되는 것이다. 그리고 말씀전파인 전도하는 것이다. 여기에 우리가 가진 다양한 것을 서로 모으고 적절히 나누는 운동은 기계를 돌리는 윤활유와 같이 필수적이다. 이제 모음나눔의 정신으로 춘천의 교회들이 나아가야 살 수 있다. 춘천이 거룩한 도시가 되기를 소망하는 춘천의 성도 여러분께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한다.

알려드려요 (교회소식 및 행사내용을 게재해드립니다. 매월 20일까지 연락바랍니다. ☎256-1260)

◆ 어린이연도연합회
새소식반 주간교사 강습회
일시: 3. 3(화)~5. 19(화) 총12주 오전10:00~13:00
장소: 신성감리교회 / 등록비 : 3만원
문의: 253-1443 [http://cafe.daum.net/cefch/]

◆ 예스컴
1) 간사 멤퍼 임명식
일시: 3월 14일(토) 오후2시 장소: 미정
2) 예스컴 프레이즈
일시: 3월 21일(토) 오후6시 장소: 중앙성결교회 소예배실
3) 청소년 리더십훈련과정 <위대한 인생 4기>
일시: 3월 28일부터 10주간 매주 토요일 오후6시
장소: 예스컴 사무실 <회비: 3만원>
문의: 예스컴클럽 club.cyworld.com/yescomclove
박진용 간사 010-8901-7004, 033)244-5400

◆ 한국대학생선교회(C.C.C.)
1) 순장수련회
일시: 2월 16일(월) ~ 20일(금) 장소: CCC아카데미하우스
문의: 252-0542, 254-5776

◆ 예수전도단 춘천지부
1) 춘천 회복을 위한 화요모임
일시: 매주 화요일 오후6:30 장소: 춘천동부교회 소예배실
대상: 연령, 교단을 초월한 모든 그리스도인
2) 춘천과 열방을 위한 중보기도 모임
일시: 매주 목요일 오후2시
장소: 베드로선교센터 5층(봄내병원)
대상: 중보기도를 자원하는 그리스도인
문의: 252-1128 [http://town.cyworld.com/ccywam]

◆ IVF
1) 간사모임 개강
일시: 3월 4일(수) 오전9시 장소: IVF회관
2) 신입생환영 연합LGM
일시: 3월 19일(목) 오후7시 장소: 한림대
3) AMT 개강모임
일시: 3월 21일(토) 오전9시 장소: IVF회관
4) 연합 RUN 모임
일시: 3월 27일(금) 오후7시 장소: IVF회관 문의: 252-5200

◆ JDM
1) 캠퍼스 복음화를 중보기도 주간
일시: 3월 1일(일)~7일(토) 장소: 각 교회 및 캠퍼스
2) KDTI 개강예식
일시: 3월 2일(월) 오전11시 장소: JDM훈련센터 송호채플실
3) 춘천지구 연합예배
일시: 3월 3일(화) 오후7시 장소: 온누리교회 본당
4) 새내기 환영회
일시: 3월 31일(화) 오후7시 장소: 온누리교회(예정)
문의: 033)243-6701, 010-2704-3375

◆ GBT성경번역선교회
1) GBT 성경학교
일시: <성경과 선교> 3월 16일~5월 18일 매주 월요일 오후7시
<선 교입 반> 3월 26일~5월 14일 매주 목요일 오후7시
장소: 예닮교회(CBS방송국 옆 대용빌딩2층)
대상: 대학(원)생, 청년, 일반인 등 선교관심자 및 헌신자
문의 및 접수: 이선희 간사 010-9244-9094
GBT 춘천지부 252-3927 chuncheon@v2025.or.kr

◆ 세계태권도선교회 춘천지회 모임
일시: 매주 금요일 오후9시~10시 장소: 경원대태권도장
문의: 263-6022, 011-9791-6055

◆ 새부산개위성선교단 토요위성퀀논반
시간: 매주 토요일 오전반9:30분~11:00, 오후반3시~4:30분
대상: 아동부(6세~15세), 성인부(직장인 · 주부 · 청년 · 사역자 등)
장소: 경원대태권도장(우석초교옆)
문의: 263-6022, 017-374-2440

◆ 목회자 특구회원 모집
일시: 월 ~ 토요일 매일 오전6시 장소: 공지천 족구장
회비: 무료 문의: 011-361-1995

◆ 춘천기독선교무용단 단시 모집
대상: 한국무용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선교하기 원하는 분
위치: 후평동 인공폭포 앞 1.5닭갈비 4층
※ 교회 방문 수업 가능
문의: 춘천기독선교무용단 010-3180-5330

◆ 행복재가장기요양기관
방문요양, 목욕 : 춘천지역 기관설치 제1호
65세 이상 치매, 중풍, 장애 등으로 요양보호 사돕봄이 필요하신 분.
문의: 011-366-4972, 255-2191 (춘천제일감리교회 탁광희장로)

◆ 인터콥 춘천지부
1) Not my vision but HIS vision - 일반비전스쿨
일시: 3월 둘째주부터 주1회 12주간
담당: 장병지 간사 016-797-9234
2) 시니어세대~ 열방을 향해 일어나라 - 시니어비전스쿨
일시: 3월 둘째주부터 주1회 12주간
담당: 박영호 간사 011-413-5806
3) 주님의 새로운 군대, 어린이세대 - 어린이비전스쿨
일시: 4월초 개강예정 주1회, 강의5회, 캠프3회 총8주
담당: 최미혜 간사 010-2968-0880
4) 이들의 예배, 한국선교부흥의 엔진 - 월드미션
일시: 3월 16일(월) 장소: 광림교회(에마골 진흥A상가 맞은편)
담당: 송봉춘 간사 010-9125-5894

◆ 교회 레크리에이션 아카데미
일시: 3월 ~ 5월 매주 토, 오후1시~3시
장소: 효신선교회 강의실(구봉합운동장 태백가든 뒤)
문의: 019-763-8868 백문기목사 (문화사역연구소장)
www.kyef.co.cc
* 교회, 단체모임, 레크리에이션 행사기획 도와드립니다.

◆ 월드비전 강원어린이합창단 단원모집
대상: 초등학교 2학년 ~ 중학교 3학년
오디션 일시: 3월 28일(토) 오전 10시, 본 복지관3층 대강당
오디션 곡명: 자유곡 1곡
연습일시: 매주 화, 목요일 오후 5:30 ~7:00
내용: 각종 행사 위문공연, 정기연주회, 음악캠프
개인성악레슨(1:1 지도), 귀가 시 차량운행, 간식제공
문의: 월드비전 춘천종합사회복지관 ☎254-7244 심효선

◆ 성인팀 연합예배
일시: 3월 1일(주일) 오후 7:30 장소 : 신성 교회
주최 : 춘천 기독교연합회

◆ 사원급구 모집 (주)이룸 춘천공장 춘천사업부
모집직종: 식품 품질관리(Q.C)
모집자격: 4년제 식품학을 전공한 남자(크리스찬 환영)
연 락 처: 010-7723-7834 송은주 부서장

◆ 유학생 캠프
일시: 3.20(금) ~ 21(토) 장소: 바나바교회
문의: 유병준 전도사 010-5016-8291

◆ 청사회 연합동부기도회(CCPN)
일시: 3. 6(금) 오전11시 장소: 유스아트홀
강사: 유승태 / 찬양인도: 예스컴 문의: 256-1260

크리스천 기타교실

□ 초 급 반 : 10명
□ 중 급 반 : 10명 (새찬송가 645곡 찬양/반주 완성)
□ 통기타 찬양/주법 세미나(무료)
- 각 교회 찬양인도자 외 중급이상자
- 매 주일 오후 4시, 장소 : 미정
□ 개인지도 : 기타 · 베이스 · 드럼 · 건반 · 화성악
□ 기타교실 시간 : 매주 화요일 오후 6:30~8:30
□ 장 소 : 춘천동성교회(팔호광장 축협 맞은편)

□ 운 영 : 3개월 코스 (St/Ar)
6만원(월2만원×3개월)
헌금/후원금으로 실경비 조달
□ 선 교 : 일반 시민 무료
□ 개 강 : 2009. 4. 7(화)
□ 수강신청 : 2009. 3. 10부터
□ 접 수 처 : 육림악기사 (☎252-5041)
□ 문 의 : 010-6654-8280

뉴랜드 음 악 선 교 원

통기타 대중시대 쉽게 배웁시다!



■ 성시화 사무국 예배



춘천성시화운동본부는 사무국예배를 2월 4일(수) 오전 11시 성시본부에서 드렸다. 이날 허창목사(반석침례교회)는 "나팔소리"(민수기 10:1~10)란 주제로 "나팔소리는 모세를 통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공동체를 인도하신 방법으로써 두 가지의 방향 곧, 백성과 하나님을 향해 불도록 하셨다. 그리스도인은 나팔소리를 듣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하며 살아야 하며, 또한 하나님께 기도의 나팔을 불어야 한다. 따라서 이 시대에 성시신문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사람들에게 나팔을 불어야하며 그리고 보여 지는 나팔소리가 되어야한다."고 설교하였다.

■ 신년 목회비전 세미나



춘천장로교연합회(회장:김종익목사)는 2월 5일(목) 오전 11시 동신교회에서 신년 목회비전 세미나 및 친교모임이 열렸다. 이날 강사 김요셉목사(선린교회)는 "성도의 삶의 현장으로 찾아가는 목회, 그리고 목회에 분명한 소명의식을 가져야 하나님에 대한 열정에 나온다."고 강조하였다.

■ 성시화 연합중보기도회



춘천중보기도네트워크(CCPN) 기도모임이 2월 5일(목) 오후12시 유스아트홀에서 열렸다. 춘천성시본부 주최로 열린 이 모임에서는 예스컴, 예수전도단, 유스아트홀, GBT, 춘천기독청년포럼, 춘천홀리클럽, 풍일나눔터 회원들이 참여한 가운데 모든 교회의 바른 성장과 부흥, 춘천이 거룩하고 아름다운 도시로의 변화, 개인 · 소그룹 기도의 활성화를 위하여 뜨겁게 기도하였다. 매월 첫째주 금요일 오전11시 유스아트홀에서 정기모임을 가지며, 3월 23일 오전10시 땅 밟기 기도를 시작하게 된다. 이에 함께 하기를 원하는 단체와 개인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문의:256-1260)

■ 새순교회 청년들 성시본부 방문



2월 7일(토) 오후4시 성시화에 관심을 가진 새순교회(담임 박찬욱목사) 청년들이 춘천성시화운동본부를 방문하여 성시화의 의미와 비전에 대해 진지한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정재호사무총장은 춘천성시화운동의 역사와 현재 진행 중인 활동들을 소개하며 청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하였다.

♡ 베드로순복음교회 입당감사예배



기독교대한 하나님의성회 베드로순복음교회(담임목사:이춘일)는 춘천시 동내면 거두리에 새 성전을 건축하고 2월 17일(화) 오전11시 새 성전 입당감사예배를 드렸다. 강사 조용목목사(기하성 대표총회장)를 비롯해 김주환목사(순복음춘천교회), 김창수목사(신성교회), 명성훈목사(성시교회), 권용덕목사(강원지방회부회장), 이병찬춘천경찰서장 등 교계지도자들과 성도들이 참석한 가운데 이춘일담임목사는 "석사동에서 지하 75평을 임대해 시작한 교회가 14년이 지난 지금 새 성전을 건축해 입당하게 하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에 깊은 감사와 영광을 돌린다."며 앞으로 성시화와 지역을 섬기는 일에 앞장서겠다고 다짐하면서 진한 감동의 눈물을 흘렸다. 베드로교회는 665평의 터에 지하1층, 지상3층, 옥상, 본당좌석 6백석 규모로 교회의 전체적인 모양은 노아의 방주를 표방했으며 야곱의 사닥다리, 팔복 등 성경적인 이미지를 곳곳에 새겨 넣었다.

♡ 춘천YMCA 60주년 기념예배



춘천YMCA 60주년 기념예배 및 정기총회를 2월 21일(토) 오전11시 YMCA 본관(동면 장학리) 3층 피스루게더에서 열렸다. 이청찬이사장은 기념사를 통해 "지금까지 이룬 60년의 결과 위에 또 다른 60년을 더하자"고 하였으며, 참가자들은 '춘천YMCA 새로운 100년을 향한 비전 2049 선언문'을 낭독하였다. 그리고 60주년 역사편찬 발간 기념 케이크 커팅 및 오찬의 시간을 가졌다. 이날 정기총회에서는 유영호 춘천YMCA부이사장이 신임이사장으로 선출됐으며, 부이사장에는 사공정(춘천중앙장로교회 목사), 박형일(변호사) 등이 선임됐다. 그동안 청소년들에게 사랑과 희망을 심어주고, 지역의 삶의 질 향상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꾀하고자 시대적, 지역적 책임의식과 사명감을 가지고 달음박질하여 온 춘천YMCA의 새로운 도약을 기대한다.

♡ 효과적인 성시화운동을 위한 협력모색



성시화운동의 활성화를 위하여 2월 10일(화) 부산 수영로교회에서 춘천을 비롯한 대구 대전 부산 울산 포항 6개 지역 사무총장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이날 모임에서는 각 지역 성시본부의 사역과 계획을 서로 나누고 성시화의 과제와 협력방안, 그리고 성시화운동의 효과적인 발전방향에 대해 논의하였다. 앞으로 정기모임을 가질 계획이며, 더 많은 성시화 도시간의 긴밀한 네트워크를 형성하기로 결의하였다.

■ 흐르는 강물처럼 영화상영



춘천성시화운동본부에서는 매월 둘째 주 목요일 저녁 기독영화를 상영한다. 지난 2월 12일 오후7시30분 늘사랑교회에서 영화 〈흐르는 강물처럼〉을 상영하였다. 명배우 로버트 레드포드가 메가폰을 잡고 인기배우 브래드 피트가 동생 폴 역으로 열연한 이 영화는 목사인 아버지에게서 낚시를 통하여 인생의 중요한 가치를 배워가는 두 아들(하나는 순종이고 하나는 반항적인)의 대조적인 길을 가는 모습을 담았다. 강물 위에서 낚시 줄이 그려내는 아름다운 영상은 한 폭의 그림과도 같다.

■ 기독교연합회 임원회



춘천기독교연합회(회장:장효근목사)는 2월 13일(금) 오전11시 연합회관에서 전체 임원모임을 가졌다. 이날 3.1절 연합예배 준비 및 향후 연합회 프로그램에 대한 계획을 논의하였다.

■ 아동권리를 찾아라!



강원도아동보호전문기관(관장:최기원)은 2월 17일(화)부터 19일(목)까지 엘리시안 강촌리조트 아동권리캠프를 진행하였다. 공동모금회의 삼성사회봉사단 후원으로 열린 본 행사는 피학대아동들과 지역아동센터 아동들에게 아동권리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특명, 아동권리를 찾아라!"라는 주제로 열렸다. 권리영화감상, 신나게 놀 권리(스키타기), 신나는 레크리에이션, 권리나무 만들기 등의 활동을 통해 아동권리는 그들의 생활 속에 있는 것이며 이를 지키는 주체자가 바로 자신이라는 것을 나누는 시간이 되었다. 아동권리교육을 통해 아동이 행복한 세상이 만들어 지길 기대한다.

■ 춘천와이신협 정기총회





춘천와이신용협동조합(이사장:심인섭) 제28차 정기총회가 2월 21일(토) 오전10시 30분 신성교회에서 열렸다. 김창수목사, 김주환목사, 중앙회 이상호이사 외 내빈과 조합원 400여명이 모인 이날 총회에서는 총자산 518억원으로 결산하였으며, 경제위기의 시기에 지역 경제와 주민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은행으로 더 도약할 것을 결의하였다.

취재 · 김미경

특허 제 10-0624040호 온라인 언어속독훈련 교수법
Rankey's Category Top 외국어학원분야 1위
한국교육컨텐츠 품질인증위원회 최우수컨텐츠 AAA등급 획득
교육인적자원부 후원 2007 한국교육산업대상 수상
교육사업 경영인대상 산업자원부 후원 2007 대한민국 교육산업 경영인 대상
개인정보보호 우수사이트

우리아이의 진정한 영어실력 정철후평어학원이 책임집니다.

정철후평어학원은 2008년 전국 정철어학원 중 최우수 학원입니다.



정철어학원 후평캠퍼스의 Hot Tip For Your Children

아이가 7-8세 라고요?
정철어학원Jr에서 영어를 배우게 해 주세요.
낳아주신 것 다음으로 최고의 선물이 될 것입니다.

아이가 2학년 이라고요?
흥미와 이해력이 만나는 나이입니다.
놀랍고 재미있는 영어학습을 경험할 겁니다.

아이가 3학년 이라고요?
회화와 쓰기를 원하시면 더 늦지 않게 지금 시작하세요.

아이가 4-5학년 이라고요?
체계적인 영어회화 교육의 마지막 나이입니다.
Listening/Speaking/Reading/Grammar/Writing
전 영역의 균형을 잡아야 합니다. 더 이상 늦추는 것은 위험합니다.

중학생이라고요?
중학생을 위한 Big News!
정철Pro Engine(18개월) 완성하여 학교성적 걱정 끝!
고교영어 No problem, 국제무대로...

40여명의 석박사급 영어교육전문 연구원을 통해 실용영어 프로그램을 30년 동안 연구·개발하여 수업에 직접 활용하는 학원은 정철어학원주니어 뿐입니다.



전 노선 셔틀버스 운행



정철어학원 Jr. 후평캠퍼스
상담예약 : 254-0535(영어사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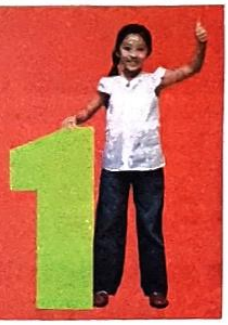
대한민국이 인정한 1등 어학원! 정철뿐입니다!!

1 정철은 우후죽순 생겨나 고사라져가는 대한민국 주니어 영어 교육계에서 30년을 한결 같이 진짜 영어 교육만을 생각하며 그 전통과 명성을 이어오고 있는 영어교육전문기업입니다.

2 정철은 전 강사진이 뽑아 받은 우수한 정철교수법을 전수받아 가르치기 때문에 최고의 학습효과를 자랑 합니다.

3 정철은 5년 연속 어학원 분야 전국 1위, 한국교육컨텐츠 품질인증위원회 최우수 컨텐츠 AAA 등급 획득 등 다방면에서 전문성과 우수성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4 정철 프로그램은 정철연 구소의 석박사 연구진 들에 의해 개발되어 전국 3000여개 정철어학원 주니어에만 독점 공급되는 최고의 실용 영어 학습 프로그램입니다.





새로운 도전 즐거운 변화를 하는 춘천와이신협

희망을 주는 곳! 사랑이 피어나는 곳!

신협
비과세예금
4천만원으로
늘어납니다

▌푼돈도 맡겨주시면 정성껏 관리하겠습니다.
▌신협은 작은 것을 소중히 여깁니다.
· 공과금납부 · 자동이체 · 예금상담 · 대출상담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곳.
Happy Bank 춘천와이신협

운교본점 255-1007 (1층 신협, 3층 기독교연합회, 4층 CBS방송)
강남지점 261-1002 (퇴계 현진에버빌 2차 옆)
이사장 심 인 섭 장로